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聯盟總會開會
—論理와現實에서考察—

一

聯盟改選案을 爲始하야 對伊制裁案撤回以後의 諸問題를 審議하기로 約束된 第十七回聯盟總會는 지난二十一日 쥬네브聯盟新議事堂에서 四十九個國代表出席下에 開會되엿다 今回의會議는 西班牙의動亂을 中心으로맛나스는諸國의 合縱連衡이 歐洲에잇서서 異常한 新動向을 示하고 또 이에對한 民主主義乃至 最近의 新政治形態로 生長過程에잇는 人民戰線의 對立이 歐洲의 危機를 刻刻으로 深刻케하는 此際에 開會된것인만큼 그趨移에 對하야서는 만흔 關心을 集注할것임에도 不拘하고 期待도 稀薄하지안흔가하는 感을 깁게하는同時에 聯盟國自體도 現機構에對하야 何等 期待와 熱意를 갓지안는 模樣이 如實히 看取된다

二

聯盟이 瘫瘓의 비출 이와가티 濃厚하게띄게된것은 지난六月 亞爾然丁政府의要請으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對伊制裁를 撤回하든 當時부터다 聯盟의 兩大支柱인 英佛兩國의 支持로 侵略國伊太利에 對하야 制裁規定을 發動하엿든 聯盟이 何等成果를 收得치못하고 그대로 制裁規定을 撤回하야 伊太利의 에國征服을 默認할수밧게 업섯든것은 勿論 複雜한 事情이 伏在하엿든것이다 첫재로 佛國은 獨逸의 無軌道的 進出에 對抗하기爲하야 구타여 伊太利와 敵對關係를 맷기는 꺼렷든 남어지 對伊制裁撤回를 列國에 率先하야 唱道하엿든것이며 둘재로 伊太利가 獨逸과 連繫하야 往年의 三國同盟을 結成하려하는 氣運이 濃厚하게되자 英國까지도 制裁撤回를 躊躇치안케다는 現實論에 기우러진것이 結局에잇서서는 聯盟으로하여금 空前의 失態를 演出케하야 對伊制裁를 撤回케하엿든것이다

三

그러나 制裁撤回後 歐洲情勢는 果然 聯盟이 當初에 豫期하엿든바와가티 多少라도 其危機의度가 緩和되엿는가? 西班牙動亂에잇서서 人民戰線對 맛쇼陣營의 結抗은 바야흐로 獨伊를 首班으로한 一聯의 맛쇼諸國의 國際戰線結成을 促進하야 데모크라시國家乃至 人民戰線에 對하야 公公然한 挑戰을 試하고잇는것은 果然 무엇을 意味할인가? 三國同盟의 復活이 英佛兩國에對한 脅威라면 맛쇼勢力의 國際戰線結成은 全歐州 한거름나아가서는 世界를 動亂과 戰爭의 渦中으로 誘導할 危險性을 多分으로 孕胎하고잇다 그럼으로 對伊制裁를 撤回함으로서 歐洲의 危機를 緩和하려든 聯盟의 意圖는 獨伊等맛쇼國家의 最近動向으로 完全히 破되고 同時에 集團的安全保障體制의 全面的崩壞와 따라 小國側의 危惧感을 高調시킨 結果를 招致하고말엇다

四

여긔서 聯盟은 지난六月臨時總會에 放棄하엿든 論理主義로 또다시 接近하려하는 動向을 示現하게되엿스니 그것은 곳 에디오피아代表에게 資格을 附與한 一事로 證明할수잇다 英、佛等 主要聯盟國이 總會前 이미 에國代表를 不承認하기로 諒解가 成立되엿든것으로보아 今回의 措置는 一種意外라할것이나 그러나 聯盟總會가 에디오피아에 對하야 代表資格을 賦與한 것은 伊、에問題를 再檢討할 目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데까지 聯盟에 對하야 不信任態度를 表示하고 永遠히 聯盟을 離脫하려는 小國側을 懷柔하야 聯盟의 威信을 回復하려는 大國側의 意圖의 表現이 아닌가 推測된다 그러나 對伊制裁의 失敗로 侵略國의 狀態를 維持하지 못하고 無力化한 聯盟이 今日에와서 寬容을 表하는 것은 論理와 現實論에서 그는 自體의 若側狀態를 表示하는것밧게 되지못할것이엇다.

西內亂을中心으로 聯盟一波瀾未免
西代表叛軍暴狀呼訴코 팟쇼國의援助暴露
劈頭外交爆彈投下乎

【쥬네브二十五日發同盟】第十七回聯盟總會는 開會劈頭 에디오피아代表資格審査에 異常한波瀾을 惹起하엿는데 伊太利政府는 어데까지던지 冷靜히 聯盟脫退의擧에 나가지안코 에디오피아皇帝 하일레·셀라시에一世도 二十四日午後十時四十分 國際列車로 쥬네브市에서 出發 巴里經由 倫敦으로 歸還途上에오르는等 쥬네브市의 國際政局은 大風一過의狀態이여서 이미 委員會의構成及副議長選擧도 完了하엿다 總會는 二十五日午前九時로부터 一般討議를 開始할豫定인데 總會에서는 一般討議爲先 英國代表이든外相이 一般討議의 先陣을擔當하고 다음 西班牙代表 데리바알氏가 이러서 叛軍의暴狀을 呼訴하고 그와함께 팟쇼國群이 叛軍을 援助하고잇는 事實을 暴露하야 總會劈頭에 새로운 外交爆彈을 投下할 決意라한다 一方 南米諸國代表는 墨西哥가 西班牙에 武器彈藥을 供給한 事實을 指摘하야 同政府를 糾彈할 方針이라고 傳한다 如何튼지 西班牙內亂을 中心으로 總會는 一波瀾을 免치못할 形勢이다 다시 佛國代表는 獨逸政府의 軍備擴張을 契機로하야 苛酷한 軍備競爭을 抑制하는 見地로 軍備擴張休止案을 提出할 方針이며 이미 總會幹部會에 通告를 發하야

一、一般國際軍縮會議의 要請에 就하야 軍縮幹部會의 復活
一、軍需工業休止案

을 提出할 方針이라한다 他方 理事會는 二十五日午後公開會議에 들어갓는데 理事會에서는 非常任理事國增加案이 成立되면 中國이 選任될것은 旣定事實인데 滿期辭任의 亞爾然丁、濠太利、丁抹三國中에서 亞爾然丁國의 後任에는 南米各國代表가 二十四日 協議한結果 볼리비아國을 推薦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엿다

어떠한敵도充分應酬 萬般의準備完了
赤軍의技術的精銳를자랑코 『보로시로프』氏豪語

【莫斯科二十五日發同盟】蘇聯國軍總師國防人民委員 보로시로프將軍은 二十四日 午後 莫斯科軍管區機動演習後 閱兵式에 臨하야 赤軍精銳를 자랑하고 다음과가티 豪言하엿다

莫斯科軍管區內各部隊는 勿論 勞働者및農民赤軍도 다 볼쉐비스트的熱望을 가지고 어데까지 强靭하게 階級敵에 對한 武力鬪爭의 準備를 進行하고잇스나 赤軍은 何等 侵略征服의 意圖를 가지고 잇지안코 오르지 푸로레타리아國家防衛에 邁進할 唯一한 國軍이다 蘇聯邦은 從來 單히 口頭의 惡口雜言을 바덧스나 언제 武力攻擊의 目標가 될는지 알수업다 蘇聯邦은 資本主義諸國의 目前의 敵으로 赤軍은 着着準備를 整備하고잇다 赤軍은 不斷히 待機하고 잇지안흐면 안된다 赤軍은 더할일이 잇겟지만 이미 이만하면 어떠한 敵軍에 對하야도 充分히 應酬할수잇다고 豪言하야도 조타

皇太子殿下 二十八日還啓

【東京電話同盟】葉山御用邸에 御滯在中의 皇太子殿下 順宮殿下 義宮殿下께옵서는 二十八日 오래간만에 東京에 御歸京하실 旨를 二十五日 吩咐하섯다 當日午前九時三十分 葉山御用邸御出門 同四十五分 逗子驛御發 同十時四十八分 東京驛御着 宮城에 御歸還하실 御豫定이다

兩神社祭典에 南總督、奉告 勅使로參向

【東京電話同盟】宮中에서는 今回 朝鮮京城神社및 龍頭山神社가 國幣小社에 列格케되어 京城神社는 來月十五日 龍頭山神社는 同十三日 祭典을 執行하므로 右奉告를 勅使로서 南朝鮮總督에게 代行케하실 旨를 二十五日 吩咐하섯다

朝鮮總督 南 次郞
國幣小社京城神社및國幣小社龍頭山神社 列格奉告勅使로서 參向被仰付

增稅案承認으로 陸相前途를樂觀

【靑森電話同盟】新國防充實計劃遂行上 大藏省으로부터 提出된 稅制改革의 增稅等이 豫想以上으로 庶政一新의 色彩를 濃厚케한데 滿足하고 目下 大演習地에 向하여잇는 寺內陸相으로서는 閣議에서 何等異議업시 承認되는데 對하야 現政府에 아직 革新的熱意를 가지고 잇는것과 今後 行政機構의 整理改善 新國防充實計畫 豫算의 遂行上에도 陸軍의 主張이 全然 無視되기어렵다고 異論乃至 主張은 업다 그럼으로 前途를 매우 樂觀하고잇는 模樣이나 卽 行政機構改革問題에 對하야는 陸軍의 具體案은 陸相으로부터 大演習出發前 廣田首相에게 文書形式으로 提出하고잇는데 그內容도 閣僚가 庶政一新을 具現하는限 그實現은 可能하며 現內閣의 存立을 脅威하는것은 아니라고한다 또 陸相의 毅然한 態度方針下에 要求하고잇는 六個年計畫 三十三億圓의 新國防充實計畫案은 陸軍日本의 進路를 擔保하는 重大意義를 總理、藏相共히 充分히 認定하고잇서서 多少 經濟的苦痛을 相伴한다 하더라도 結局 陸軍의 主張은 承認될것으로 樂觀하고잇다 但 三十餘億의 豫算을 繼續豫算으로 하야 初年度以後 後年度에 亘한 年次豫算은 六個年으로 不可分의것으로서 要求한 陸軍의 意向方針을 果然 容認할가 問題인데 此點에 對하야는 寺內陸相이 不在中 梅津次官 磯谷局長 其他關係局課員이 事務的으로 說明하고 當局에서 折衝하야 陸相歸東後 本格的折衝을 行할 方針인데 寺內陸相으로서는 此際 繼續豫算에 關한 議會의 協贊을 『軍事豫算에 關한 限 退却치안는다』고 決意를 固하고잇는故로 이點만 그計畫의 大槪가 承認되지못하면 斷然 責任을 負擔할 覺悟를 ...

蔣氏逃避的態度는 事態惡化에拍車
有田外相、駐日許世英大使에게 蔣自身의交涉을要求

【東京電話同盟】有田外相은 二十五日 午後四時半 駐日中國大使 許世英氏의 來邸를 求하야 成都事件以來 頻發하는 不祥事件解決이 遷延되고잇스므로 事態가 漸次 重大化하는 危險性이 잇는旨를 指摘하야 蔣介石氏가 依然 逃避的態度를 갓고 自進하야 時局收拾의 重責을 가지지안는것은 事態惡化에 拍車를 加하는것이므로 此際에 速히 南京에 歸하야 川越大使와 一日이라도 빨리 問題解決의 協議를 進行하여야할것이라고 蔣介石氏와의 直接交涉을 要求의 通告를 하엿다 許大使는 그 眞意를 蔣介石氏에 通告할旨를 約束하고 辭去하엿다

上海市長 敦睦令公布

【上海二十五日發同盟】上海市長 吳鐵城氏는 廿五日 第三百六十三號布告로서 如左히 敦睦令을 公布하엿다

思惟컨대 立國의 道는 內로는 規律을 직히고 建設에 努力하며 外로는 國家의 信用을 尊重하야 諸國을 敦睦시키는데잇다 大凡 我國民은 友邦에 對하야는 睦誼를 敦히하야 排外 又는 外國人에 惡感情을 挑發하는 言論行爲가 잇서서는 안된다함은 이미 中央에서 布告한바로 市民은 맛당히 此에 從할것이다 本布告에 背叛하는 者는 容赦업시 嚴罰에 處할터이다

故宇垣大將夫人葬儀 萬餘名參加코盛大執行

【東京電話同盟】故宇垣大將夫人 貞子女史의 葬儀는 二十五日 朝野名士二千名 參列下에 靑山齋場에서 執行되엿다 此日午前九時 東京市四谷區內藤町에 잇는 宇垣邸에서는 喪主一雄氏以下 遺族이 奧日本間에 安置된 柩前에 着座 淀橋區常圓寺住職 及川眞能師 讀經裡에 燒香拜禮가 잇섯다 十一時三十分 靈柩車에 移轉하야 自宅出棺 喪主 遺族은 自動車를 連結하야 靑山齋場에 向하엿다 齋場側에는 西園寺公代理 廣田首相 平沼樞府議長 湯淺宮相 各閣僚 淸浦伯 貴衆兩院議長外 顯官名士로부터 贈呈된 花輪이 大略二百 其他 山積된 供物이 잇섯다 午後一時부터 及川導師以下 十名의 莊嚴한 誦經裡에 葬儀는 進行되어 午後一時二十分 倶倶하게도 宮家의 代香이 잇슨後 全國으로 參集한 弔電의 披露가 잇섯다 다음 喪主遺族 親族 參列員 葬儀委員長等의 燒香이잇고 葬儀終了 午後二時로부터 一般告別式에 옴기여 萬餘參列者는 肅然히 告別式을 終了하엿다 또 遺骸는 代代幡火葬場에서 茶毘에 부쳐 午後六時四十分 歸邸 近近 多磨墓地에 埋葬되기로되엿다

英中空軍提携
英國空軍總司令스氏 廣東에서蔣氏와會見

【漢口廿五日發同盟】現 中國에 와잇는 英國空軍總司令 씨드니·스미드氏는 廿四日 飛行機로 漢口로부터 廣東에 向하엿다 右는 廣東에서 蔣介石氏와 會見하고 本國航空省의 重要訓令에 基하야 英中空軍提携에 關하야 協議를 遂하려는것이라고 傳한다 中國空軍은 從來 米國、伊太利와 密接한 關係를 保持하고잇섯스나 日中關係의 重大化에 乘하야 英中接近을 傳하고잇는 此際에 中國이 가장 힘쓰고잇서서 建設에 努力하고잇는 空軍方面에 잇서서 于先 英中提携를 企圖하려는 重大使命을 帶하고잇는것으로 今回의 會議結果 最近 中國空軍은 英人顧問을 招聘할것으로 觀測된다

細萱少將이公電 北海現地調査狀況

【東京電話同盟】北海의 現地海軍指揮官 細萱少將으로부터 二十四、五兩日 海軍省에 達한 報告에 依하면 中野氏殺害事件에 關한 現地調査槪況은 如左하다

一、九月二十三日午前八時 北海의 實地調査開始 日本側調査委員 戶根木廣東總領事館書記生、村松廣東警察署長、須賀海軍武官、福田第五水雷戰隊參謀、嵯峨艦附長、岡山陸軍武官、外遊擊二名 中國側調査員 凌十芳綏靖署外一名
二、北海市內는 戒嚴令이 施行되어 調査員은 廣東軍及憲兵護衛下에 中野氏가 殺害된 住宅의 實地檢證及遺族檢證을 施行 遺骸는 九月十七日 公安局손으로 墓所에 埋葬된것을 發掘檢屍하엿다
三、二十四日午前八時頃 調査를 開始 遺族其他現狀의 調査를 終了後 中野氏의 遺骸를 受取 遺族全部 一時 廣東에 撤收시키기로하고 財產에 封印하야 中國側官憲에 管理시켯다
四、遺族은 海南島海口로부터 領事館員保護下에 廣東에 보낼 豫定이다

張外交部長辭任?
進退兩難에陷入하야
反日歐米派策動猛烈

【上海二十五日發同盟】現狀下의 排日行爲는 上海事件으로 極端에 達한 感이 잇는데 이에對한 蔣介石氏의 態度는 全혀 回避的으로 現地當局을 憤激케하고 잇슬뿐이고 또 中國側에서는 國民政府部內에 이機會를 타서 反日、歐米派의 策動이 猛烈히 進行되고잇슴으로 外交部長 張群氏는 進退兩難에 陷하야 結局 辭職할수밧게 업슬模樣이라한다

犯人三名모다 犯行否認

【上海二十五日發同盟】水兵狙擊事件의 三人의 中國人은 二十五日 工部局警察署로부터 上海第一特區法院에 옴기어 刑事第三法廷에서 訊問을 밧게되엿는데 犯行에 關하야는 三人이 모다 異口同聲으로 頑强히 否認하고잇다 法院은 다시 取調하기爲하야 一週間拘留에 附할旨를 發表하엿다

非常任理事國 增加案可決 總會第一委員會

【쥬네브二十四日發同盟】聯盟總會第一(法律及構成)委員會는 二十四日午前 開會、和蘭代表 리브로氏 司會下에 開會、非常任理事國의 增加案을 審議하엿다 審議結果 非常任理事國、現在의 九個國을 十一國에 增加하려는 案을 可決하엿다 委員會의 決定에 依하면 非常任理事國中 一名은 極東에서 擇하야 中國을 選任할 모양이다 다른 一國은 從來 順順히 非常任理事國의 配定을 바더오던 國家群以外의 一國에 줄모양이다

人事·集會

◀林田林儀氏(京城日報主筆)新任人事次 二十四日來社

夕刊後市況 廿五日

◆大阪 短期(金融)◆
大新 七一三〇 (不變)
鐘新 一七二四〇 (三〇高)
日產 七九三〇 (一〇高)
東新 一三五八〇 (三〇低)

◆橫濱 生糸 後引◆
當限 七〇八〇〇 先限 七〇八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一六〇 先限 五九四〇

在鄕軍人會의 組織法制化
十月十一日實現

【東京電話同盟】陸軍의 一大方針에 基하야 帝國在鄕軍人會組織法制化는 去十八日 閣議에서 軍部大臣으로부터 提案하야 承認을 求하야 十五日 勅令及省令으로서 公布되고 十月十一日부터 實施되다 이로써 同會는 名實共히 그 內容을 充實하고 公的機關으로서 軍部兩大臣監督下에 그 統制力을 强化하야 軍人精神涵養에 邁進하기로될터이다

海員審判所 朝鮮에도二審制 二十五日부터實施

朝鮮에도 二十五日부터 海員審判所를 二審制로 實施하기로되엿다 一審은 地方海員審判所로 總督府前 元朝鮮步兵隊자리인 遞信局分室안에두고 高等海員審判所는 遞信局構內에 두엇다 職員의 定員은 高等海員審判所는 所長一人(勅任) 審判官六人(奏任) 理事官二人(以上奏任) 書記三人(判任)으로하고 地方海員審判所는 所長一人(奏任) 審判官四人(奏任) 理事官二人(奏任) 書記三人(判任)이다 以上의 職員中 專務官은 地方海員審判所審判官 理事官及書記 各一人이며 其他는 兼官이다 다음에 高等海員審判所의 審判은 所長及審判官中 三人의 列席合議로서 하기로 規定되어서 이點은 日本內地와도 差異가 잇다 朝鮮의 海員懲戒에 關한 海員審判은 大正三年 制令第十一號 朝鮮海員懲戒令及 同年勅令第五十號 朝鮮海員審判所官制로써 制定된 一審制度로 當時에 잇서서는 海事行政의 創業時代이엿스므로써 船舶及海員等의 數도 比較的少數이엿기때문에 이것으로서 足하엿스나 爾來 朝鮮海運事業의 躍進的發達에 伴하야 船舶 海員及 海事審判事件도 逐年 異常의 增加를 하엿슬뿐아니라 時代의 進運에 따라 事件의 內容도 漸漸 複雜多岐에 亘하야 海員審判의 公正을 期하기는 困難하게되엿고 民間의 要望도 자조 잇섯스므로 審判官理事官及書記의 一部를 專任官으로 하엿다 이에 要하는 經費는 多年 要求하여왓는바 今年의 臨時議會에서 겨우 通過되엿스므로 前記諸法令을 改正하야 九月二十五日부터 二審制度를 實施하기로되엿다

日本人移民禍를 米移民官强調
南米各國은數世紀가못되여 黃色人에占領된다고

【紐育二十四日發同盟】칼리포니아州 駐在米國移民官 게려氏는 산파울로州에서 日本人移民狀況視察歸途 二十四日 紐育에 들렷는데 日本人移民禍를 强調하고 다음과가티 放言하엿다

산파울로州에잇는 日本人移民狀況을 視察하엿는데 同州現狀으로 推察하면 南米各國은 數世紀가 못되여 全部 黃色人種에 占領될것이다 南米諸國은 速히 브라질國以下의 低率로 日本人移民을 限定하여야 하겟다

警察部長會議 招集치안키로決定

各道知事會議에 繼續하야 三橋新警務局長을 마지하고 各道警察部長會議를 招集할 與否에 對하야 警務局에서 考慮中이던바 南朝鮮地方 防空演習及 司法官會議 其他各種會議가 連續的으로 開催되고 또 警務局으로서는 爲先 指示 協議事項等도 업서 다만 各道管內狀況을 聽取하는 程度에 끄칠터인데 此際에 警察部長會議는 招集치안코 十月上旬부터 各道警察部長이 交互로 上京하야 個別的으로 管內狀況을 報告 三橋新局長이 이를 聽取하야 部長會議에 代身하기로 되엿다

西政府義勇軍 獨逸人小學校檢索

【마드리드二十四日發同盟】西班牙赤色義勇軍은 首都마드리드市에서 獨逸勞働戰線의 크라부及 獨逸人小學校를 占領하고 書類를 押收하야갓다 獨逸代理公使는 右에 關하야 二十四日 西班牙政府에 嚴重한 抗議를 提出 代理公使는 多數押收物品의 返還과 獨逸人財產의 正當한 保護를 要求하엿다 西班牙外相은 陳謝를 表明하고 在留獨逸人保護를 約束하엿다

普通文官講義

朝鮮普文合格者體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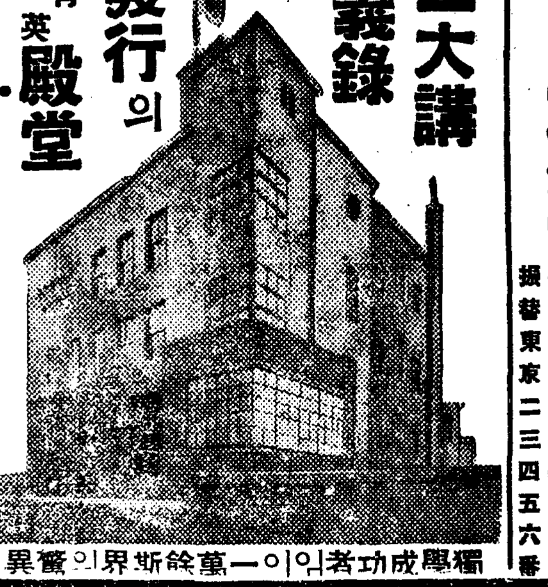
朝鮮總督府에서는 每年八月 文官普通試驗을 施行하지만 其때마다 本會會員에서 合格者의 過半數에 相當한 會員들이 合格하고잇습니다 그리고 朝鮮普文은 合格者를 採用한다는 方針아래서 行하는 것이므로 本會會員 會友合格者는 全道各官衙에 充滿하고잇는 狀況입니다 諸君도 只今入會하면 來年에는 그 一部만 揭載합니다 今年에도 合格者도 이 移狀이 殺到하여잇지만 다음 試驗에는 꼭 征服하야 官界에 進出할수잇습니다

●(前略) 今年八月 朝鮮普通試驗에 不肖한몸으로서 十九歲의 年少者가 多幸이 合格할수가 잇섯습니다 이것은 諸先生의 熱心잇는 指導라고 感激하고잇습니다 (全北 崔成祚)
●今番普文에 合格의 榮冠을 어든 것은 오직 懇切한 諸先生의 指導라고 생각하야 永遠히 感銘拜謝하는 바입니다 (京城 卜利孫)
●今番僥倖이도 合格圈內에 드러간것은 優秀한 講義錄이 잇는까닭입니다 (慶南 金英世)
●今年 朝鮮普文에 應試한바 初陣으로 多幸히 合格하엿습니다 오래동안 本會의 指導를 深謝합니다 (平壤 崔瑞國)
●年少十八歲! 初陣으로 合格 感激不堪하야 深謝하는 바입니다 (忠北 金炳憲)
●普文合格 深謝하는 바입니다 (咸南 趙吉來)
—(以下 本會機關雜誌에 發表)—
●要書에 本新聞紙名記入、住所氏名明記、御申越次第、獨學成功寫例滿載의 冊子、無代贈呈。

要冊進呈

東京市澁谷區 明治神宮表參道
日本通信大學 法制學會
振替東京 二三四五六番

二大講義錄 發行의 靑英殿堂



獨學成功者인 一萬餘名 斯界의 驚異

現代書道講座

毛筆書道와 펜字와 便紙法 併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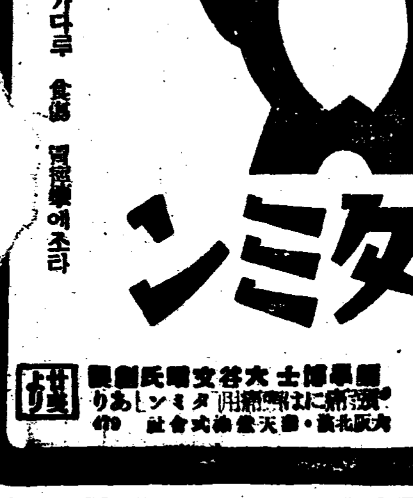
受驗에도 就職에도 社交에도 緣談에도 能筆이 얼마나 得이 되는지 모릅니다 通信教育界의 王者인 日本通信大學法制學會는 새로히 現代書道講習會를 이르키어 書壇의 重鎭精銳權威者를 總動員하야 從來보지못하엿든 가장 理想的인 『書道講習錄』을 編纂하야 斯界에 問하고잇습니다 『펜字』와 『書信』의 各科를 併講하야 書翰의 手本과 新明快한 講義와를 六個月全八卷으로 興味津津한中에도 不知中에 누구나 熟達할수잇는 巧妙한것입니다

講師는 吉田苞竹、高塚竹堂、松本芳翠、松井如流、山下雪谷、佐藤示右、小野鵞堂、田邊古村의 諸先生입니다

●葉書에 『朝鮮日報』名記入 『書道見本』 送呈

各手本付 見本進呈

東京市澁谷區穩田一ノ四
現代書道講習會
振替東京 八八八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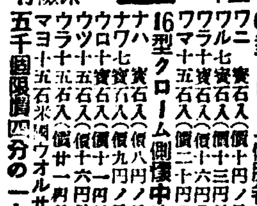
慢性腹痛
도 이러케 … 할대에 本劑를 使用하면 苦痛을 모르다

腹痛タミン
鮮快히 苦痛을 除去

買藥가다루 食傷 胃腸藥에 조타

醫學博士 大谷文明氏創製
大阪·北濱 天神堂 株式會社

瑞西 金融品大亂賣 特製



五年保險付
十型クローム側腕卷時計
...
東京市 田小路 經堂 前驛
服部時計商會
振替口座東京四〇二〇一番

近代人의 嗜好에 適合한 유씨ー코한 香氣

파리製보다 優秀한 良品
丹頂チック
整髮은 지구기가 便利하다

適度의 粘調와 自然의 光澤 整髮感萬點

金鶴香水株式會社 ¥ 50 .75 1.20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現行市價三分一 投賣急告

最新流行型
十五ケ年保險付

クロム側腕卷時計 (純米國製) …
クロム側懷中 (タサリメタル付) …
クロム側懷中ウオルサム (米國製) …

東京市淀橋區上落合二ノ六一七
セイコーシヤ地方時計部
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

映畵創始以來 初有의 名豆로 九月廿二日부터 空前의 超特別興行
南海의 페一간 M·G·M超大作 特級日本版
古城의 妙鬼 MGM超特作 日本版
渡り鳥 長脇差勝負
團成社 貫鐵町 電光三九五

第二次土地買收
十一個里住民側과 交涉이 決裂
會社側은 昭和八年地價固執
長津水電에 또 말성

【長津】야구재벌(野口財閥)의수전왕국화(水電王國化)하는 북조선에잇서서 날로방대한계획을진행하고잇슴에는 세인을놀래이지아니할수업다 장진(長津)에서는 장진강본류와 지류를합하여 전력사십이만키로 발전의세계적대공사를 제일기이기삼기사기로 분하여 착착진행하리라고하는데 루차보도한바와가티 제일기공사는 지금으로부터 사년전 소화팔년에기공하여 작년까지필하고 제이기공사도 계속하여 금년가을까지 준공하게되얏는바 이공사로인하여 상남면갈전리(上南面葛田里)로부터 남으로오십리되는 중남면사수리(中南面泗水里)까지 또는 갈전리(葛田里)에서 서으로 사십오리되는 서한면매향리(西閑面梅香里)까지 수백년동안 평안히 살어오든 륙백여호의주민들은 정든마을의주택과 전토를 수전회사(水田會社)에 팔어버린동로는 재작년겨울부터 작년여름까지에 이곳저곳으로 모다떠나가고 그들의살어오든 열두부락에는 주위삼백여리되는풀을젹이 망망한 대호수가되여 현대공업의 위력을 뵈이고잇는것이다

수전회사에서는 이기공사가끗나자 다시 삼기공사를 시작하기로하고 동양일의 제일제언지갈전리(第一堤堰地葛田里)에서 북으로 삼십오리되는 상남면속사리(東沙里)에 제이제언공사(第二堤堰工事)를 금년십일월부터 다시금 시작하게되얏슴으로 다시금 언공사지(堤堰工事地)와 제이침수지(第二浸水地)매수문제는 또다시 파란을일으키고 세인의주목하에 전개되여잇다

제이침수지로 말미암어 마을을 고토를버리고 떠나야할주민의 호수와 부락은 다음과갓다

上南面 東沙里 一部
同 袂物里 一部
同 袂物中里 一部
同 天宜水里 一部
中南面 通智水里 一部
同 高所項里 一部
同 新興里
同 泗水里
西閑面 西水里 一部
同 柳潭里 一部
新南面 下柳潭里 一部

이가티관계지 십일개리에 호수는 약사백여호(四百餘戶)에 달하리라고한다

금년오월이후로 함자선도로(咸慈線道路)용지와 제이침수지(第二浸水地)매수문제로 지주대표리태완, 정찬도(地主代表李泰完鄭贊燾)량씨와 수전회사간부와 로동으로 수개월이래로 여러번절충이잇서왓스나 회사측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사년전소화팔년(昭和八年)에 매수한단가를 주장하고 지주층은 이와반대로 현재토지경기의 올라간시가와 기타의모든사정을 참작하여 일기매수가격보다는 지금시가에딸아 올리여 주민의이주후 생활안정이되도록하지안흐면 안되다는 조건을주장하여 수개월동안 절충하여오든지주대표와 회사간부와의교섭은 지난오일경 결렬이되고 말엇다하며 지주들의 태도는극히강경하여 회사의요구에는 절대로불응하고잇는중이다

郡廳과警察署當局이 賣渡承諾을要求
會社員帶同코地主들을呼出

그런데 원래제이제언공사용지 매수할것을 관계주민일반은 알지못하고 또는회사측에서도 일체발표치안코 비밀에붓처오든바 전기와가티 지주대표와 회사간부와의사이에 제이침수지되는 중남면사수리(中南面泗水里)방면의 토지매매교섭이 결렬되자 회사와 함남도당국(咸南道當局)과의 토지매수에 대한협의가 잇슨후 지난삼월일일부터 군수(郡守)와 경찰서장(署長)이 회사원을 대동하여가지고 관계주민들은 알지도못하고잇는 상남면메물리(上南面袂物里)에 출동하여 관계지주들을 경찰관주재소(駐在所)에불러서 수전회사의 제이제언(第二堤堰)기공기일이 급박하엿슴으로 속히매도를 승인하기를 요구하엿다한다

地主文莊運氏談

지금부터십년전에 삼릉회사(三菱會社)에서 이곳에 수전공사를 계획할 토지를 매수하겟다는말이 잇섯스나 그후부터 지금까지 이곳에는 아모말이업섯스니 우리는 안심하고 잇섯든것입니다 뜻밧게 이번에 군수와 경찰서장이 회사사람을 다리고와서 갑작스럽게 우리와 협의하는일에도어서 닷자곳자로 전에 일기공사에다면(他面)에서 매수하든 가격대로 승낙하지안흐면 안된다하고 강요하다십히 하니 놀라운가슴에 억이매힙니다 적어도 수백년동안살어오든 땅을 떠나는사람들의 생활이 엇지 수전회사(水電會社)에서 요구하다십히 헐하게될리가 잇겟소 우리는 회사에서 모든 보상(補償)을만히바터 가지고 떠나간다해도 석원지못할터인데 우나 억울한조건으로 요구하는데잇서서는 더욱분합니다 우리와는 하등의 타합도업시 주민들의실정과의사를 무시하고 회사사람과한게 승낙을 요구하는 당국의태도를 리해할수업습니다

中央高普赤色事件
昨日로審理終了
求刑과辯論은廿九日에

중앙고보독서회사건관계자 한동정(韓東正)등 여덟명에대한공판은 이십오일오후 한시반부터 속행되야 오전의사실심리를 게속하야 치안유지법위반에대한심리를 맛추고뒤이어 류인수(柳仁洙) 류형(柳術) 리홍규(李洪圭) 리종설(李鍾說)네명에관한 공무집행방해밋폭력행위처벌위반에관한 심리로들어갓는데 작년이월 십팔일 정량원(鄭良元) 김학수(金學秀)두생도가 선생에게욕설을하다가 퇴학처분을 당하게된것으로 말미암아 사학년갑반생도들은 울반생도들과 협의하야 퇴학취소요구를 하는동시에 교실안에 룽성(籠城)하야 단식(斷食)시위를 하는동시에 책상과걸상을 깨트리여 선생과 경관의 제지에 대항한일이 잇슬때에 피고들도 다른생도들과함께 그런일을 하엿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야 피고들은 대개사실을 시인하야 사실심리는 이것으로 끗이낫다 검사의구형과 변호사들의 변론은 오는이십구일 속행공판에서 하기로정하고 오후네시십분에 폐정하엿다

窃盜容疑의少年
拾得金消費事實自白
西門署의嚴重取調로綻露

길에서주은돈을먹어버리려다가 경찰에걸린소년──이십사일부내서대문서에서는 중림정(中林町)일백사십구번지 사십오호에사는 고중식(高仲植)(一七)이라는 소년을붓잡어다가 절도용의로 취조를하는중 의외에도 그는이십이일오전아홉시에 부내의주통(義州通)이정목 일백칠십오번지 아페서 현금십팔원을 주어가지고 그일부를 소비하고 남어지십일원가량을 중림정에잇는 천주교당마루미테 너어둔것을 자백하엿다는데 아직도여죄가 상당히 만홀것갓다한다

免許업는醫師 注射로殺人
犯人은安岳署에引致

【安岳】허가도업는 의사의동생이 환자에게 주사노아 사람을 죽이고 십이원야감 미진햇다는리유로 진단서를 써주지안허서 극빈농가에 일대공황을 주더니 사실이 발가되자 경찰서에 검속되는동시에 비도더한그가 개심할회가 닥처왓다

이는안악군안악면해창리(安岳面海倉里) 김농장소작인 신태준(申泰俊)(三二)씨가 수일전부터설사와 배아리를하다가 지난십오일에는 더욱심하야 대원면복사리보안의원(大遠面伏獅里保安醫院)에 사람을보내어 의사하종선(河宗先)씨를 불러진찰을청햇더니 의사는 오지안코 그의동생 하종순(河宗淳)(二七)이라는 무면허가도업고 매량한사람을 보내여 무슨주사인지는 모르나 오후한시에 세대를놋코 갓슨데 배아리하든 신태준은 병이점점더하야 다시금의사를 도청햇더니 여전히 종순이가와서 오후일곱시쯤 또한 주사두대를 놋는데 의사허가도업는사람한테 일곱도모를 주사를 전후다섯대에 그는 드듸어 그날밤을 참지못해서 죽고말엇다 살림이극히 빈곤한 그들은 어찌할수업서서 동보안의원에 가서 진단서를 해달라 햇더니 약갑시원떼려간것잇스니 그것전부 갑허야 진단서를 써준다는 가혹한거절에 넘어나 맥이업고 긔가막킨 그죽은이의 친척은 즉시로 안악본서에 고발을 햇더니 지난십칠일 공의 송영찬(公醫宋榮燦)씨와 목원서장(木原署長)이 검사대리로 사체가 잇는 현장에 출장하야 사체해부와 엄중한 검시가 잇슨다음 주사와치료가 잘못되엿슴을 발견하고 허가업는의사의 동생 하종순을 검속하야 본서에 유치하고 엄중한 취조를 할모양인데 별세한 신태준씨는 어린자식이 륙남매이고 지금유복아가잇서 식구가 모다구인인데 그는 본시 신천군노월면마여리(信川郡老月面馬餘里)에살다가 삼년전에 이곳에와서 김농장의 소작인으로와서 근근히 농사지어살든터인데 아모로 남은여덟식구의운명이 참혹한것이라한다

平壤모헤트氏 二十四日에歸國

귀독교장로파(基督敎長老派) 평양부신양리(平壤府新陽里) 이십륙번지에사는 선교사『모헤트』씨는 최근 자기소유의 토지전부를 매각하여가지고 신병의리유로 귀국하게되여 이십사일오전 열시삼십분에평양역을출발하엿는데 시월십이일횡빈(橫濱)을 떠나 미국(米國)으로 도라가게되리라고한다

動物愛護會總會
任員全部를새로改選

조선동물애호회(朝鮮動物愛護會)에서는 이십오일네시반에 시내부민관(府民館)에서 동서양가국인 오십여명의 참집으로제십일회 총회를열고 전년도 사업보고를 한뒤임원을 새로선정하고 금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켯다 그리고끄트로 전전(前田)소장의 강연이 잇슨뒤 오후여섯시반에 폐회하엿다

그회에서는 시내열두곳에 우마의 먹을물을 준비해둔수조(水槽)가잇는데 작년도에 그물을 도적한것과 빨래한것과 생선과 채소를 씨츤것과 낫츨씻고 발을씨츤것과 흙과 모래를 너흔것과 마개를 빼여물을 내여보낸것들의 사고를 낸것이합게 일천이백구십건이나되며 우마의 먹일 그수조(水槽)에 작난을 하는자를 붓잡아서 설유를 시킨것이 열명 경관에게넘긴것이 세명이나된다 한다 우마의 먹일 수조사고의 가장만흔데는 동대교(東大橋) 독립문(獨立門) 광희문(光熙門)등세곳으로 마부(馬夫)들이 더러운의복을 빨고 나츨씻고 발을씻첫스며 그가운데서도 동대문의수조는 괴팍부까지 파괴되엿다 한다 그러고 채소를 만히 씨츤것은 동대문수조인데 동물을 애호하는 생각으로 이와가튼더러운짓을 제발 마려주엇스면좃켓다한다 그러고 작년도에 일사병(日射病)기타 여러가지 상처로 말미암아 치료를 바든말은 한게 팔백이십칠두나 되엿다한다 그리고 이번에 개선된임원은 다음과갓다

◇改選任員
▲名譽會長 大野政務總監(交涉中)
▲名譽副會長 헌스─英國總領事
▲副長 코리─米國總領事
▲理事 相川外事課長夫人

金海署員俄然緊張
男女青年을檢束
新聞支局員이大多數

【金海支局特電】이십오일 오전네시경부터 김해경찰서원이 출동하야 청년아홉명과『인테리』녀성 두명을 검속하야 그중청년네명은 곳 경남도경찰부자동차로 경남도보안과에 송치하엿다

그런데 검속한내용은 극비밀에 부치기때문에 아직 자세한것은 알수업스나 검속된사람들은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의 김해지국장을 비롯하야 본사진영(進永)지국장 녀자청년회장등도잇고 그외에 무직자도잇슨데 경관은아직도 출동중이며 흥분된 예비검속이 아닌가하는 추측도 잇다한다

素沙驛附近에서 鐵道에轢死

【仁川】지난이십사일오후삽시인천발 경성행렬차가 소사역(素砂驛)을떠나 약십『키로』되는지점에서『겹인비슷한 삼십오륙세가량되여보이는 남자가 뛰여들어 무참히도 치어죽어는대 소지품은 아모것도업슴으로 신원을알길이업서 동면에의뢰하야 매장하엿다한다

仙女야어대갓느냐?

경기도수원군성호면 오산리(水原郡城湖面烏山里)사백번지 리용봉(李容奉)의 큰딸선녀(仙女)(十)은 수일전에 그의고모부인 부내황금정(黃金町)사정목 오십일번지 박병직(朴炳職)씨의집에 와서잇든중 이십사일 오후네시쯤하야 바게놀러나갓다가 종시도라오지안함으로 그의가족은 곳 경찰에 수색원을제출하고 팔방으로 그의간곳을찻든중이라한다

男便이負傷한것을 復讐코저放火
什長의妻李順女送局

【咸興】갑산군회린면 교항리(甲山郡會麟面橋項里)도로 공사팔록 김정장(八木丁蔣)소속 인부감독 김자성(金子成)의처 리순녀(李順女)(三三)는 지난달이일부터 방화(放火)혐의로 풍산경찰에서 취조를받다가 이십일에 그취조가 끗나고 함흥법원 북청지청에송국되엿는데 젊은그가 방화라는 무서운 죄명을둘러쓰게된것은지난오일 자긔남편 김자성(金子成)(七)이가 인부들의 전표에관한 극히사소한사건으로 동정장폭발게(爆發係)주임석전(石田)과 서로 싸우게되여 남편김자성이가 석전으로부터 칼로찔리워중상을입은것을 분히여겨서 그를복수할생각으로 십일일오후여섯시 동정장림시사무실과 석전의 살고잇는집에 불을질러 함께번에 태워버린것이다

◇延專軍을 一蹴한 崇專軍의 威容

强豪延專을壓倒 遠來의崇專先勝
儆新軍도東興中學軍을一蹴
興味는今日의決戰에

모교에를 마옴것 발휘하고 승리혼(勝利魂)에약동하는 학원스포─츠의 호화판…본사후원아래열리는 연희전문(延禧專門)과평양숭실전문(崇實專門)의 정기축구전(定期蹴球戰)은 간도동흥중학(間島東興中學)대 경신학교(儆新學校)의 대항전과 아울러이십오일 오후세시부터 훈련원운동장에서 열리엇다

조선의사학계에 잇서서 중앙과지방을 대표할만한중진인 연전과 숭전 그리고 멀리간도로부터 그리운 배달동지처온동흥중학과 경신학교가 축구기를 둘하야 돗기픈교환(交歡)을 하는마당이라 만도의시청은 오로지 이에집중되여초서향리에열리엇다 호린한날세로 축구경기에는더할나위업는절호한『컨디숀』아래출전용사들의 충천하는 의기는장내를 위압하고도 남음이잇섯다 이옥고 동흥동화대경신학교전이 열리어열전끄테일대령으로 동흥군이분패하엿다

이날오후네시반 숭전、연전의『이례분』이 연전악대의 류량한주악소리에 발마추어 본부당당히장내에나타나 본부석아페 정렬하니 연전교장『언더우드』씨의 개회사로서 입장식을 마치고 긴장과 흥분속에 전단은 열리엇다。

이리하야 전세는 시종 숭전군에게 유리하야 절대이의 스코어로 연전군 패권의 고배(苦杯)를 드리니 금이십륙일 오후세시부터 열리는 제이회전에 연전이 전날의 분패를 설욕할것인가? 또는 숭전이 련승하야 긔념할 제일회전의 패권을 획득할것이가? 흥미는 오늘의 결승전으로 쏠리고잇다。

儆新1 東興0
【前0…0、後1…0】

(東興)

GK	RF	LF	RH	CH	LH	RW	RI	CF	LI	LW
李南浩	曹永浩	李渭瑞	姜應彬	李春奎	金東九	朴成範	鄭[illegible]九	金廷錫	金根[illegible]	尹春吉

(儆新)

GK	RF	LF	RH	CH	LH	RW	RI	CF	LI	LW
殷之東	鄭度[illegible]	吳義[illegible]	李永[illegible]	宋一[illegible]	朴利[illegible]	金承[illegible]	張[illegible]榮	金貞亮	崔延壽	秋尙年

	前	後	計		前	後	計
(東興) 得點	0	0	0	(儆新) 得點	0	1	1
門蹴	6	2	8	門蹴	1	5	6
隅蹴	1	2	3	隅蹴	0	0	0
自由	2	1	3	自由	0	1	1

【戰況】東興中學對儆新戰은 同日午後三時十五分부터 金命濟(主) 金勢勳、丁邦勳(線)三氏審判아래 開始되바 連日의奮鬪에도 疲勞한빗조차보이지안는 遠來東興軍은 强陣儆新FW의猛襲을바더 劈頭부터 멧번이나 危機에빠젓다가 東興後陣의必死的防禦로 得點치못하야 前半은 兩軍零對零無勝負로마치다 後半에드러가 東興軍의攻勢熾烈하야 五分에踢蹴을利하야 絕好한『찬스』를마젓스나 儆新GK의善防으로無爲、廿分에儆新LI鄭度瑞君單身『드리불』하야 幸運의一點을너흐니 게임은漸次激烈化하야 못끼지 兩軍一進一退하드니 드듸여 一對零으로 東興軍惜敗하엿다 (게임七十分間)

崇專7 延專2
【前3…1、後4…1】

(延專)

GK	RF	LF	RH	CH	LH	RW	RI	CF	LI	LW
韓申錫	金寅[illegible]	金成玕	章惠德	李芳林	丁海[illegible]	李[illegible]	李奉[illegible]	李容[illegible]	洪[illegible]	金[illegible]炫

(崇專)

GK	RF	LF	RH	CH	LH	RW	RI	CF	LI	LW
金壽守	金永根	車淳玉	沈鍵烈	洪澤[illegible]	毛麒春	盧應[illegible]	金昌植	李景奎	金[illegible]	趙鍾海

	前	後	計		前	後	計
(崇專) 得點	3	4	7	(延專) 得點	1	1	2
門蹴	3	2	5	門蹴	7	2	9
隅蹴	1	2	3	隅蹴	0	1	1
自由	1	2	3	自由	3	1	4

【戰況】崇實專門對延禧專門戰은 同日午後四時四十六分부터 全有亮(主) 片茂英、金龍圭(線)三氏審判아래 崇專킥어프로 開戰한바 兩軍 자못緊張한가운데 熱戰을 展開하야 八分까지 서로 好機를 마젓스나 GK의防禦로 得點치못하드니 九分에延專RI章惠德君 十五碼地點에서『롱숫』하야 첫뽈을 어든後 十二分에 崇專大擧逆襲하야 LI金永根君의『롱숫』으로 一對一同點、二十二分에 崇專CF車淳玉君『패날티에리아』線에서 正面으로『숫』한것이 보기조케『뽈인』되여 二對一로 崇專리─드하니 이로부터 戰勢는 崇專에게有利하야 延專後陣을 擾亂시키드니 二十六分에 延專CF金成玕負傷하야 一時 退場하엿다가 後半戰부터出場하엿다 前半五分을남기고 崇專LI金永根君中央線附近으로부터 無人之境을거러가드시 單獨『드리불』하야 손쉽게一點을加하야 後半戰에 드러가 開戰劈頭에 延專뽈前에서混戰하다가 崇專CF車淳玉君의숫으로 得點하니 四對一로『스코어』는버려지자 延專의守備線은 意氣銷沈하야 FW線과의連絡이 圓滑치못함으로 崇專의『스피─드』잇는 攻擊力을 增進케할뿐이드니 十三分에崇專뽈前에서亂戰하다가 崇專FB의발에마저 自己便뽈에드러가 四對二되엿다가 十五分、廿分、四十四分에 崇專FW線의『드리오』金車沈三君의活躍으로 連續得點하야 七對二로 延專軍無念의慘敗를당하엿다 (게임七十分間)

結核退治에큰貢獻
海州救世療養院 收容患者激增

【海州】소위망족적(亡族的)질병인 폐결핵(肺結核)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잇거니와 이에따라 해주구세요양원(海州救世療養院)의 결핵퇴치운동도 해마다발전하고잇다

즉 동료양원은 지금으로부터 팔년전인 소화삼년봄에 창립되여 이래결핵병의 퇴치(退治)와 그예방공작에 전력을 다하여왓는바 그입원환자수를 년대별로 보면

年代	入院患者數
昭和三年	三六〇名
同 四年	一、一五〇
同 五年	三、六五〇
同 六年	六、五七〇
同 七年	七、三〇六
同 八年	九、一二五
同 九年	一三、一四〇
同 十年	一九、一四〇

등으로서 팔년동안에 입원환자수용수는 약오십배의 격증을 뵈이고잇다

그중에 전치환자(全治患者)는백여명에달하며 반쾌환자(半快患者)는 입원환자전수의 약오할에 해당하다고한다

올림픽代表本隊 香港에到着

【香港廿四日發同盟】올림픽代表本隊百四名을 실흔鹿島丸은 二十四日午前九時半香港에 入港하엿는데 一行은 元氣旺盛한가운데 上陸하야 午前中에는 同港을觀察하고 午後에는 當地日本人會主催의 歡迎午餐會에 出席하엿다 그리고 鹿島丸은 二十五日저녁에 日本으로向하야 出發할豫定이다

府廳4 京電3
決勝戰은今日擧行

京城實業野球聯盟 秋期리─그最終日의 京城府廳對京電戰은 廿五日午後四時부터 京城球場에서 柳(球) 佐藤、白石、百瀨(壘)四氏審判下에 府廳先攻으로 開戰되바 結局四對三으로 京城府廳軍이 得勝하엿다 그리하야兩軍은 四戰三勝一敗의 同率임으로 今二十日午後一時부터 京城球場에서 決勝戰을 擧行하기로되엿다

◇投捕=(京電)田村─河野(府廳)松元─崔仲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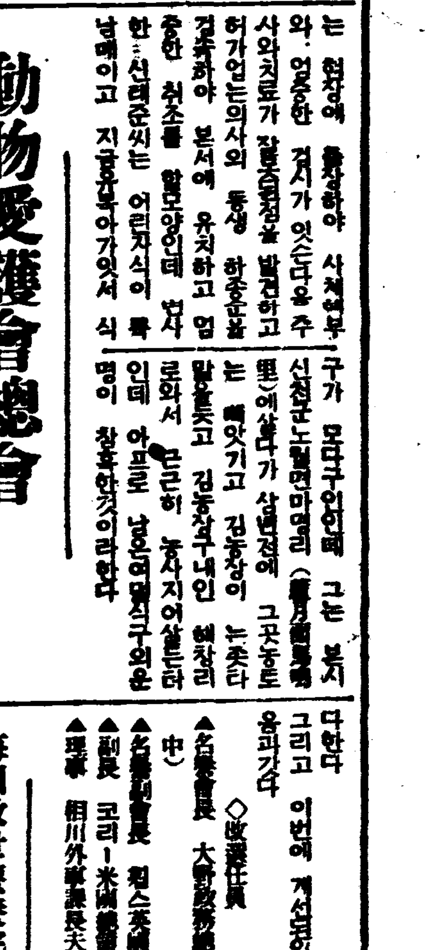
京電 (000002100)─3
府廳 (200020000)─4

各팀戰率表
(廿五日現在)

1、	京電	四戰三勝一敗	〇·七五〇
1、	府廳	〃	〃
2、	殖銀	四戰二勝二敗	〇·五〇〇
2、	鐵道	〃	〃
3、	遞信	四戰零勝四敗	〇·〇〇〇

今日의運動

▲蹴球=延專對崇專定期戰第二日 午後四時半 京城運動場 (入場料一般三十錢 學生二十錢)
▲庭球=秋期實業團리─그第十日 午後一時 遞信對府廳 朝銀對商銀(以上朝銀코─트)專賣對總督府、鐵道對殖銀 (以上殖銀코─트)
▲A마라손=第十八回 A마라손會 午後三時 光化門通네거리出發
▲野球=實業리─그決勝戰、府廳對京電 午後二時 京城球場



女性의最大幸福
夫婦간에琴瑟조코子福어들수잇는
帝國大學病院指定病院婦人科서使用하는
新發明療法을누구나할수잇다
冷症을낫게하며 月經痛、下腹痛、腰痛이速治되고
有毒대하물을근치식혀婦人特有의美를發揮식히게해

이 기쁜 全快의 감사장

冷症이 全快되여 갑삭이姙娠
(大邱) 金 貞 淑

냉증이甚해서結婚後姙娠을못하고 手足이어름가티 냉하여는데냉습이나와 衣服을드럽히며 머리가무겁고頭痛腰痛이잇는故로 유쾌한날이업스며 月經전에는허리를여이는듯이못견될지경이엿습니다 男便은애업는나를버리고 小室을어더에보겟다고하는故로 시앗볼생각에氣가막혀 엇더케든지姙娠하여서 男便의사랑을도로빼서보려고 불똥로아래배를덥게하여도보고 湯藥의냄새가방안에까지배도록 內服藥을오래長服하여보앗스나 金錢만내버릴따름이요 도모지낫지아니함으로 絕望하고잇슬때에 우연스럽게東京帝國大學病院婦人科에서使用한다는 와세도球가 불임症을비롯하야 부인생식기모든병에 疾風的효과가잇다는말을듯고서 즉시 三十六日分을가져다使用하든이튿날부터 허리통이좃코곳곳더워지며생기가나서 나날이아래人배압흐든것이나지고 흐르든冷증이들해지며 手足까지따뜻해젓습니다。月經때면급게되든苦痛도업서저 每月일정해젓고(中略)이제서야지난七月에五年만에 姙娠이라는醫師의診斷이되여男便에게이야기하엿드니매우기뻐하시고 지금은全허平和스럽게解産을苦待中입니다 爲先人事次로이만드립니다。

重症이 半月만에 全快
(忠州) 朴 英 順

女子로태여나 主婦가되여서는돈과망病男便에게바치는것이幸福이라는것을잇엇면서도 男便에게서淋毒이옴니다 甚한淋毒性子宮內膜炎이되여後부터下腹이압프고 땅기여바늘로찔르는것가치쑤시고 냉이몹시흘너나오더니 엇던때는피고름이석기고두통이나며手足이차디차서 夫婦간자미를 못보아집안이씁씁하엿습니다。男便은내漢藥을一年이나 먹고거문일가튼것도 집어너어보앗스나 자궁이붓고아파서못견듸엿스며局部가허려지거나해서 하나도효력잇는藥은업엇습니다(中略)우연히東京가잇는 親戚되는婦人이 나와가튼重하든것이半月만에全快되엿다는 와세도球를 가라처주기에즉시使用해보앗드니 과연신효한것이엿습니다 지금은냉물도나오지안코 배가댕기지안코 흔들든것이시원스러지듯이나어서 일년동안 모르고 이제서야 부부화합에자미가 놓후해젓습니다。

自殺하려든 婦人病이 全快되여
(江陵) 鄭 順 伊

자궁병이란누구에게하소할데도업서 日夜번민을거듭하든 동안병세는 점점더하여가게되엿슬때에 놀내서먹든약을집어쓰드니먹거나 洗滌을하드래도조금도효과가업고지버섯든약이라도자궁부가허려서압흐거나 약하기前보다도 냉물이더나와서 흰내의를거먹케물드려서 여간더러워뵈는것이아니며 마음내무당에게정성까지만 혓도드려보앗스나병으로 더칠뿐이요 이제는自殺이라도하려고햇슬때 帝國大學病院婦人科에서使用하는 와세도球가 신효하고유명한博士數백명이실지로써보고증명한 조흔약이라는것을알고 廿四日分을써보앗드니 그러케도안낫든압흐든괴로움과 불쾌하든냉습이꾹꾹쏘듯치사리저버리고 얼골도혈색이 찾고 精神이상쾌해저서 이제는健康한몸이되여서 매우감사를드립니다。

冷汁의毒素는 사람을죽인다
東京木村婦人科病院長 醫學博士 木村 仁

부인몸의故障이라는것은 모다全部가冷症에서이러나는것으로結婚한뒤 또는나히가먹어갈수록 더욱심해지는것이다。특히結婚한뒤病毒을아래로서 밧게되면누른빗또는피가석기는 냉물이자궁안에샘솟듯하여 그毒素로해서 下腹과腰痛이생기며 넓적다리가뭉시땅기여숨이갑빠지게까지되는것이다。또 몸전신의혈액이더러워저서입끌비치창백해지고 神經이산란해지며 突然히회만나고 급기야불면증이생기고히스테리와頭痛、肩痛이甚해지게된다。이러케중래가되기前에 치료를하는것이제일필요한것이나 重病가되엿드라도 근심할것업시 와세도球라는新發明된놀라울만한 신효를가진부인병약이생겻스니 安心하고치료하게하시요。먹는약은醫學의진보되지못한때 즉옛적의方法이요 문명한現代에서는全혀所用업는것이다。지버섯는약도 와세도球와가튼 大病院에서使用하는藥이아니면 오히려危險하다。手術이나하면아닐만한중래의부인병도 와세도球로 全快되엿가山갓치만습니다。

十人中九人은거반冷症 내버려두면子宮이못쓰되

자식업는婦人은 가라는말은七去之惡의하나이나 그것은當然한것이다。婦人으로서子福이업스면 家庭의자미를모를뿐더러 가장이世上에서 不幸한사람이외다。

아해가업는것은 冷症을치료안코내버려두어서 子宮卵巢가活動하지안는까닭이故로 조혼藥으로治療하면 十여年된子福업든婦人도곳수태할수잇게된다。냉증이잇는분은처음에는 적빗가송물이나오다버려두면 그것이고름가치누래지기도하고 퍼래저서나종에는피와고기덩어리가석기게되여서 子宮이점점파궤되여 活動을못하게되는것이다。지금이러한증세가잇는분이거든 즉시와세도球로治療하시지안으면 무서운結果가되는것이외다。

먹는藥에는根治力이업다

現代醫學으로는 먹는약에는第一살균력이업는것이 證明되여잇는故로 먹는약은全혀아모소용업고金錢만버리는것과가튼것이다。

子宮에즉접殺菌이제일

冷症을근본부터全快식혀 냉물이안나오게하려면 와세도球로子宮을 즉접으로殺菌식히여허려진곳과 붓고압흔곳을 고치는것이 속하고제일 확실한것이외다

쓰지말라 검은座藥단단한球를

子宮속에넛는 座藥中에 단단한 球나지묘발은 子宮이홍집이지고압흔것이요냉증이더만하나와서局部가毒시압혀져化하는것이오니使用마시도록注意하시요。

냉증으로신속하게 낫게하는偉力

帝國大學病院赤十字病院其他全國큰病院에서 그偉力을 인정하고 使用하면곳낫는와세도球는매우 경쾌하게쓸수잇스며 팔분이면 녹아서찌거기가남지안코 全部가 子宮에 번저드러가서압흔곳을 속속드리낫게한다 흉녀나오거나 끈적어리지안코 손쉽게 잘듯는약이요 그리고 약가튼냄새가 업서서男便몰래도 치료할수잇스며 엇던중태에라도十二日分만 使用하면 全治되는것은이약의큰자랑이외다

산藥價 다른婦人藥과 比較하면 이러한偉力으로는너무싸다할만하다 七日分七十錢 十二日分 一圓廿錢 廿四日分二圓卅錢 卅六日分三圓四十錢 四十四日分까리도 希望하시면노아드림니다。注意하실것 有名藥店에잇사오나 品切된때는左記總代理店으로 爲替나 振替로 注文하십시요。

無代 婦人病大家醫學博士河合先生著作 女性의新生理學 읽으시면冷症에對한 치료법이설명되여잇스니 左記로希望하시는대로 거저드립니다。

東京市芝區新橋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日本製藥合名會社 振替東京三二九四三番 電話芝三二六八五ノ六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光三二五三

朝鮮聲樂研究會男女名唱總出演 金容承脚色
歌劇 春香傳 全一幕

朝鮮이가진唯一한歌劇春香傳은 世界的자랑이라는것은누구나잘알면서도엇더케하는지는누구나모르는 실것이나이번에同研究所에서는그들 會員全部가總出演하야모다一流名唱歌客들이다도아會心의熱演을發揮하야完全히歌劇春香傳의價値를기울짓고야말엇다。두번엇기어려운이期會에꼭한번보시라더구나 그들의구성진목과구성진가락은후리를能히울니고웃키고도남을것이다從來의所謂唱劇과는그맥시부터가다르든이歌劇春香傳을보시라

出演者 宋萬甲、李東伯、丁貞烈 金昌龍、吳太石、丁南希、朴綠珠 林小香、趙鶯鎭、姜太弘其他

九月廿四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 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六時半
◇獨우파超特作映畫 안제라、자로카主演 꾸스타브、우스키監督 問題의大雄篇 짠다─크
晴黑한中世紀에태여난神秘奇蹟의少女의悲壯하고도아릅답든그生涯여!
◇獨우파超特作映畫 푸랭크위스발監督 大空의驚異 新時代의流行兒구라이다의世界最初의雄篇、사랑과友情을그린새로운메로도라마!
◆新興키네마超特作映畫 鈴木澄子 尾上菊五郞 主演 悲哀嵐の道 눈물과哀憐에저진悲戀情話新興後近의大傑作品、女性팬諸氏에게特히勸하고십다 (次週封切) 法地獄 百發百中칸다、無

團成社

九月二十四日밤부터三日間!! 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均一 土曜日曜祭日은晝夜二回 午後一時 밤七時半始映
◇獨逸토비스社特作全發聲版!! 酒場의어머니 全八卷
◇파─데社超特作全發聲映畫!! 大爆笑劇 나이트와─크 全九卷

桃花劇場
麻浦桃花町 電龍三三三番

大活劇 血笑手造酒 全八卷 監督…押本七之郞 主演…澤村國太郞 氏多美一披露

當る廿三日ヨリ三日間◆次回廿六日ヨリ二日間◆
河合ダンス躍進日本の先驅者! 明朗發潮美の亂舞! 最低料金階下席拾錢均一
大都映畫時代劇 監督白井戰太郞 十六夜鴉
海江田譲二主演 大都映畫現代劇琴プロ大都合同作 監督吉新穗 琴絲路主演 前田郁月 捨子
コロビア映畫日本版 監督ウイリアムネイル アンサザーン主演 八點鐘

中央館
永樂町 電本二七七番

訃告

崔炳熙氏以宿患今月二十四日(陰八月九日)午前五時別世玆以

昭和十一年九月二十四日
告計 嗣子 崔東九 夫人 崔炳熙 親戚代表 松永元常
友人代表 崔永南

發靷 九月二十八日午前十時
永訣式場 自宅
墓地 富川郡素砂面深谷里同同家族墓地

殉敎福者記念 카톨릭講演會

복자기념(殉敎福者記念)가톨릭대강연회를 개최한다고한다 일장은다음과이며 강사와 연제는 다음과가다。
會(明治町)가톨릭청년회(靑年會)주최로 이십칠일 일요일오후 부터 부인회관(婦人會館)에서
現代社會와카톨릭 吳基先 神父
殉敎福者의事蹟 朱在用 神父

永登浦、敦岩里兩線 區域撤廢는無望

往十里線은明年度에複線化

京電武者專務에一問一答

경성전긔회사에서 경영하는로량진(鷺梁津) 영등포(永登浦)사이의 『베스』선로를 한구역(현재는 두구역)으로 하여달라고 영등포주민들이 여러번 여론을이르켯고 돈암리(敦岩里)와 동소문(東小門)사이의 『베스』선로도 도심지대(都心地帶)인 광화문통(光化門通)이나 경성역까지 한구역으로해달라고 그부근일대의 주민들이 맹렬히운동을 이르킨일이 잇섯는데 이에대한 경성전긔회사당국의 태도는 어떠한가 긔자는이십오일오후에 그회사의 무자전무(武者專務)를 맛나 여러가지로 의향을 무러보앗든바 전긔두선로부근주민들의 요망은 전연 드러줄 여지가업다고 말하고 그자세한 대답을 다음과가티 하엿다。

긔자。 영등포 로량진사이의 『뻐스』를 한구역료금을 밧고 태워달라는 영등포주민들의 요망을 드러주지안켓는가

무자。『뻐스』는 리익이 생기지안흘뿐더러 요지음 『까소링』갑도 올랏고 또한 승객도 그다지 만치안흐므로 손해를 보아가면서 그요구에 응할수는 업다

긔자。 승객이 적다면 전차선로를 부설하야 만히 리용하도록하고 료금도 로량진까지균일제로하는것이 어떤가

무자。 승객이 별로업는데 전차선로부터 먼저 부설하여서는 회사에서 폭이 잘맛지안켓스므로 그리하기어렵다

긔자。 전차가 통하게되여 교통이 편리해지면 그에 따라서 그연선일대가 발전하야 승객이 만하지는것이 아닌가

무자。 그러치마는 그러케까지하기는 어려운일이다

긔자 그러고 돈암리와 동소문사이만을 도심지대에까지 한구역으로해달라는데 대하야는 어떠케할 생각인가

무자。 그선로도 타는 사람이별로 만치안흘뿐더러 원래그선로는 그곳주민들이 하도『뻐스』를 통하게해달라고 여러번이나 졸르기에 부득이 용해준것이고 리익도 생기지안는 형편인데 이제 또다시 도심지대까지 한구역으로 해달라는것은 너무도 뻔뻔한소리다

긔자。 령천(靈泉)에서 홍제원(弘濟院)까지 전차를 개통시킬터이라는 소문이 잇는데정말인가

무자。 그것은 전연 거즛말이고 토지『뿌로커』들의 땅갑을올리랴고 공연한선전을하는것인지도몰르겟다

긔자。 창경원(昌慶苑)아페서 동소문안(東小門)을거처 종로오정목까지 전차선로를 부설할 계획은업는가

무자。 종로오정목까지는 아직생각지안햇스나 창경원서 동소문까지는 진작부터 계획하고잇는데 경성부에서 길만속히 넓혀주면 전차길을깔작정이다

그러고 왕십리(往十里)전차선로는 명년도에는 복선(複線)으로 깔계획을하고잇다

毒茸로 一家呻吟

六名中一名은死亡

【水原】지난이십사일에 고양군 신도면 화전리 칠십번지 (高陽郡神道面花田里七〇番地)사는 오봉근(吳鳳根)의가족 륙명이 버섯을먹고 중독중 신음하다가 일명은사망까지하엿다는 사실이잇다 그는 동산에서 버섯을 따다가 쌀머먹은게 원인이되여 버섯의독으로 인하야 신음하든중 그의 외손자 김춘배(金春培)(九)(假名)은 직사하고 나머지오명은 신음중 또 그중두명은 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월래가난한집이라 손대일사람도업서서 동리 청년회장 리병원(李秉元)씨외회원의 출동으로 사망아의매장은 하기로되엿다한다

泰和女子館內에 英語講習院開講

【仁寺町泰和女子館내에잇는 영어강습원(英語講習院)은 가을개학기를 마지하야 더욱내용을 충실히 하엿다는데 남녀청년에게 현대어느곳에서나 쓰지안흘수업는국제적용어 영어(英語)의 보급을위하야 교수에 노력하고잇는 동강습원은 매일오후 칠시부터 시업한다하며 강사는 어학교육에다년간 경험이만흔 서양인남녀강사가 다수하다고한다
더구나 영어교수를 하는외에 영어타이프라이타ㅡ라도잇서실제사무에필요한것도가르킨다고한다

日給의全額或은半額 罹災同胞에提供

"龍山工作"職工들이百五十七圓醵集 本社永登浦支局에寄托

【永登浦】전고미문인수만흔 리재동포를위하야 금전으로의복으로 속속동정금이답지하는 이때 룡산공작주식회사(龍山工作株式會社) 영등포공장(永登浦工場)종업원들의 뜨거운동정이야말로뜻는사람을감격케한다
그네들은 위험하기짝이업는긔계미테서 얼마되지안는 도을밧고새벽부터 밤중까지 모진고역을하야 근근히 생애를 합에를구하고 금번수해에 처참한리재동포의 정경을 생각하고 이에동정하야 일급의 전액혹은반액식을 때여 모든돈이 일백오십칠원십오전을 지난이십이일본사영등포지국에 긔탁하야 본사로 송금케되리라는데 일반은 그뜨거운동정에 감복하기를마지안는다고 한다

市內居住中國人等 千餘圓義捐寄託

紅卍字會의活動多大

수만흔 아름다운 동족애(同族愛) 인류애(人類愛)의꽃을 피운수재의연금모집은 이제 마금기일인 금월삽십일을 닷새동안남기고 최후의활발한긔세를 보이고잇는 이때에 또다시 특기에도 명랑한 인류애(人類愛)의 『뉴ㅡ스』가 하나잇다
이십사일아츰 시내에 거주하고잇는 중화민국인 오백삼십명이 풍부하지못한생활에서 모은돈을 수재지의리재민들에게 전하여달라고 사회사업협회에 긔탁하엿다한다 그 의연금모집에잇서서홍만자회(紅卍字會)에서 만흔활동이잇섯다고한다

元彰學院에서 現金을寄託

이십오일오후 부내 창의문밧부암정(付岩町)에잇는 원창학원(元彰學院)생도 추호경(秋好景)(一三)허태권(許泰權)(一三)두소녀는 그학원생도일동이 모흔 현금 삼원십오전을가지고 우병호(禹秉浩)、홍영표(洪英杓)두선생에게 안동되여 본사를 차저와서 『적은돈이나마 우리들의 정성이오니 수해에 울고잇는 불상한동포들에게 전해주십시오』하고 도라갓다

一面一校完成 記念聯合運動

始興郡敎育會主催

【永登浦】시흥군 교육회(始興郡敎育會)에서는 지난 이십일 오전 십일시부터 동군청 회의실에서 평의원회를 개최하고 전번이동에 의하야 회장 능천청지조(能川淸之助)간사 곽구구차(郭久口次)평의원 앵정다리장(櫻井多利藏)등 제씨의 역원을 선정하고 게속하야 도외시찰을파송키로하고 파견원에 교장이인과 수석훈도팔인을 선정한후일면일교완성을 축하하는 뜻으로 그념연합운동회를 아래와가티개최키로 협의하고 오후 칠시에 폐회하엿다한다

期日 十月十日
場所 安養公普校
參加兒童 郡內各校三年生以上二千餘名

各校運動會日割 始興郡管內

【永登浦】시흥군(始興郡)관내에 각초등학교 추기대운동회의 일할은 아래와 가트며 신동보통학교(新東普通學校)에서는 개교 신축락성식을 겸하야 오는 시월하순경에 개최하기로 하얏다한다.

十月 一日 安養公普校
同 安山公普校
同 二日 果川公普校
同 三日 君子公普校
同 軍浦公普校
同 四日 新東小學校
同 五日 西面公普校
十一月三日 始興公普校

月尾島캠핑生活 延人員九百五十

하긔방학동안에 인천(仁川)월미도(月尾島)에서 천막생활을한 학교와 학생수는 요지음 경기도학무과에서 정확한 조사가완성되엿는데 그것을 보면 열세학교에 학생수는 뵈십사명이엿다。
그것을 연인원(延人員)으로보면 구백사십구명이나되며 학교별로 보면 다음과 갓다

校名	人員	滯在	延人員
▲中央靑年會學校	一七	八	一三六
▲善隣商業學校	三	一五	四五
▲京城第一高普校	五	六	三〇
▲京城靑年會學校	一	一七	一七
▲京城電機學校	一	一七	一七
▲大東商業學校	一	一七	一七
▲京城師範學校	三	八	二六
▲京城公立商業學校	二	一五	三〇
▲京城工業學校	四	三	一二
▲京城貞洞公普校	六	三〇	一八〇
▲京城第二高普校	三	五	一五
▲東京早稻田大學	二	一五	三〇
▲京城帝大豫科	七	四	二八

東門署管內狂犬豫防

동대문서에서는 다음과가티관내에 광견병(狂犬病)예방주사를 실시한다고한다

施行月日	施行場所	施行豫定數
九月二十八日	東大門署	一〇九頭
廿九日	東星商業學校	九七頭
三十日	新設町駐在所前	一七九頭
十月一日	新堂町土木課出張所	一九四頭

이외에 전기지동물의 소유자인 명에는 관계가업슬것이나 목뇌(牧腦)병원에서 방문할것이라한다

商工界을總網羅한 仁川商工親和會

創立準備會를開催

【仁川】인천은 조선에 유수한 무역항으로써 무역액이 실로이억원을 돌파하고잇스나 일반조선인을 중심으로한 상공계의단체가업슴을 일반식자간에 통탄하고잇든바 근자에이르러 단체창립에대한 기분이 농후하야지나이십삼일 오후칠시부터 인천상공회의소회의실에서 유지십륙명이 집합하야 창립키로 결의한후 출석한제씨가 발기인이되는 동시에 그외에도 상공계중심인물을 발기인 되기를청한후 오는십월칠일 오후칠시반부터 상공회의소에서 발기인회를 개최키로 결정하야 규약초안을 결정하는동시에 일반준비에 대한결의가 잇스리라한다

金晨鎭博士祝賀宴 소장의학자로 일홈노픈 김성진(金晨鎭)씨가 작년이십일에 영예의 박사호를어든데대해서 선배와 친지들이모여 지난이십사일 시내 명월관에서 성대한 축하회를 열엇다 씨는 성대의학부(城大醫學部)를마치고 동소천외과에 재직중이든바 근일에 그곳을 그만두고 개업준비중에 잇다한다 (사진은 씨의 축하회장 서잇는사람이 김씨)

月尾島入口에서 通行人을轢傷

【仁川】지난이십사일 오후칠시십오분경에 인천자동차부 리후선(李厚善)(二七)운전의 자동차가 월미도입구에서 인천부율목리(仁川府栗木里)이번지 윤완병(尹完炳)(二三)이가 마참길을건느라할지

今日

專門校蹴球의雄 崇專對延專第二回戰

今廿六日 午後四時 京城運動場
入場料 一般 三十錢 學生 二十錢
後援 朝鮮日報社

運動競技

鐵道、遞信各勝 實業庭球第九日

京城實業庭球리ㅡ그第九日의鐵道對專賣戰(朝鮮銀行코ㅡ트)과朝銀對遞信戰(殖銀코ㅡ트)은 二十五日午後五時부터 열린바 다음과가튼 戰績으로 鐵道、遞信兩軍이勝하엿는데 同리ㅡ그戰 二十五日現在의 各團戰勝率은 다음과가티 總督府와鐵道兩軍이모다 四戰四勝의 全勝率을 保持하고잇다

【朝銀】【遞信】勝
【第一라운드】
×(加藤 中川)0…4(宮崎 元大奎)○
○(庄司 橫田)4…1(松田 李鍾楠)×
×(木津 福田)1…4(朴鍾輝 大友)○
【第二라운드】
○(庄司 橫田)4…3(宮崎 元大奎)×
【第三라운드】
×(庄司 橫田)0…4(朴鍾輝 大友)○

【鐵道】勝【專賣】
【第一라운드】
○(鄭士連 渡邊)4…2(白潤輔 朴寅世)×
×(朴源福 金乙鉉)0…4(李鳳基 梁在景)○
×(長沼 秋山)2…4(黃基成 淺野)○
【第二라운드】
○(鄭士連 渡邊)4…0(李鳳基 梁在景)×
【第三라운드】
○(鄭士連 渡邊)4…3(黃基成 淺野)×

◇各團戰勝率(廿五日現在)
1、總府 四戰四勝 1.000
1、鐵道 四戰四勝 1.000
2、殖銀 六戰四勝二敗 0.667
3、遞信 三戰二勝一敗 0.667
4、專賣 四戰一勝三敗 0.250
5、府廳 四戰四敗 0.000
6、商銀 四戰四敗 0.000
6、朝銀 四戰四敗 0.000

新聞小說界에 明星出現!

長篇小說 雙虹舞

春海 方仁根 作
熊超 金奎澤 畫

方仁根氏

金奎澤氏

때는 맑은가을입니다、벌레소리를 드르면서 인생을 기피생각하고 등잔불을 도두어서 조흔 글을 읽고십지안습니까? 만천하우리독자들의이러한 심경을 짐작한 본사에서는 오는 이십구일 조간삼면에 신문소설의 권위인 춘해 방인근(春海方仁根)씨의 득의작인 『쌍홍무』(雙虹舞)를 실기로 하엿습니다。 씨는 다시 소개할것도업시 우리문단에서도 독특한 작풍으로 외연(巍然)한지위를 싸어올린신분인바 이번의 이대작을 내여노키위해서 삼사년래로 침묵을 직히다가 마친내 그연대(巨大)의 붓은 움칙이게되엿스니 작자의 이러한 각고정려의 정성은 반드시 독자여러분의 감격의 눈물로 보답되리라고밋습니다。 더구나 삽화는 나날이 그 화명이 노파가는 웅초 김규택(熊超金奎澤)씨가 심혈을 기우려 맛터보게되엿스니 이 글과 이 그림이 합친다면 그야말로 『쌍홍무』란 제목가티 두줄기 무지개가 함께 어우러저 지상에 춤출것을 기뿌게 기다립시다。

來二十九日부터 朝刊三面에連載

湿布 EXIHOS エキホス
包裝 一〇〇瓦 二五〇瓦 五〇〇瓦 二瓩
A-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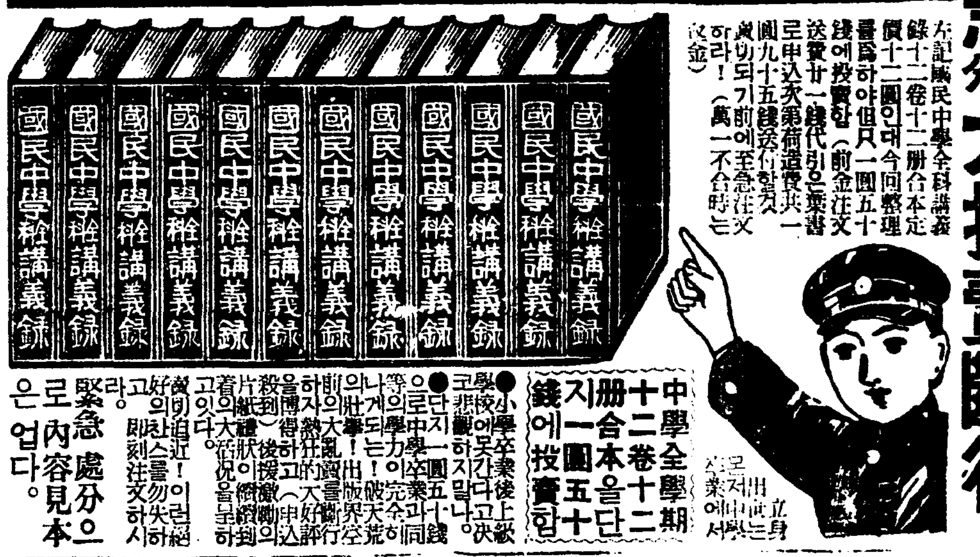
●感嘆!!感嘆!! 정말頭痛에써 조흔 ノーシン 이다●

SP眞珠入 부라치나반지 大景品
美術置時計

●正解者에는左記各種大景品을進呈함 美術置時計・金五十錢券一枚、流行歌一冊、靑年娛樂冊一冊、映畵俳優大寫眞集一組、昭和十一年新日記贈呈券과上記景品을 ●不正解者에는切手를返送하고新雜誌를發送함
朝鮮日報 京販 電本(2)一五九七番 靑年時代社

新雜誌『月刊靑年時代』創刊紀念 大宣傳을爲해
大景品付 자미난 아라내기

(課題) 2 5 8
(定規答案)
우의六個四角이비여잇는데그中에1346 79의六字를너어서모로가로어느곳으로하던지十五가되게하여주시오
▼答案資格 朝鮮日報讀者에限함
▼締切期日 本日부터十五日以內
▼答案은課題를切取하야各二十四錢同封郵送할것(切手可)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本川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國民中學講義錄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左記國民中學全科講義錄十二卷十二冊合本定價十二圓인데今回整理를爲하야但只一圓五十錢에投賣함(前金注文送料廿一錢代引은葉書로申込次第荷造發送함) 品切되기前에至急注文하라!(萬一不合時는返金)
中學全學期十二卷十二冊을一合本一圓五十錢에投賣함
緊急處分으로內容見本은업다。

川本式 ポンプ TRADE MARK
好評! 滿天下의『ポンプ』界를 斷然『리ㅡ드』한다
全國到處에信用잇는機械、金物、ポンプ店에잇슴
實用新案216835號 水バルブ付新時代

注意! 今番特許局의査定에依하야、登錄商標第二六三一九五號로 과가티『川本式』이라는字句도商標로公告되엿고 以來弊所製品에는全部『川本式』이라고明記하엿읍니다 從來製作의 印ポンプ는製作을廢止하엿읍니다 眞正한『川本式』ポンプ는 印外에는업습니다
名古屋市中區大池町一丁目 川本製作所 振替名古屋二五七七番・電話中局四四五五番 電信略號モトハカプンポヤゴナ
特約店 岡谷銅物部

マミツ 香油 ポマード

有名化粧品店에잇다
毛髮의整美는 마쯔미가第一입니다
發賣元 大阪スキー 艶出シ香油 ポマード 本舖
偽造物이잇사오니注意하십시요

味の素 (登錄商標)
탄복할 음식맛
(李)어째서이러케맛이조흔가?
(金)허ㅡ이사람아지노모도를치니까 맛이야틀림잇나
(李)오라 참맛잇네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鈴木商店

第一劇場 鍾路五丁目 電光二七五五番
九月二十五日 大公開
每日三回晝夜興行 一回 正午十二時부터 二回 夜間 七時三十分開場
R・K・O社超特作 아리소니안 리챠드・딕스氏主演
興太者와小町娘
空中自動車

產業

京城一圓의卅六 採石場集中統制
風致區內의것은全部廢止하고 適當한數個處로縮減

近年一般的으로 人口의 都市集中의 傾向이 顯著한것과 인푸레景氣에 依한 新建築物의增加와 都市計畫의 進捗으로 因하야 石材特히 花崗石等의 需要는 漸增을示하야 京城府內의 一年間消費는 四十餘萬圓에 達하는터로 그供給은 江華島産出의 堅實石材一萬圓程度의 移入을보는外에는 거의 京城市內外의三十六個所에 散在하는 採石場에서 이것을 供給하고잇다 朕體로 此等採石業은 近年의 需要激增과 價格昂騰으로 業績이 顯好하든터인데 이와가티好景氣로 풍성풍성하는 採石業에 一大異狀을 보게되엿다고한다。 그것은 京城府風致委員會의 發議에 依하야 京畿道 總督府의 協議의 結果 京城府를 中心으로한 新設風致區內에잇는 採石場을 全部廢業케하는 이것을新設京城府境界線에서 三里以內의 適當한 數處에 集中하야 統制하기로 方針이 決定되야 近近實施키로되엿다는데 于先廢止의運命에 處한 採石場은 前記總數의 三分之二 即二十餘個所에 達한다고한다 統制는 安全地帶라고하던 採石業에도 加하게되야 採石景氣에異變을 生하게되엿다

圓 一萬五千餘圓이라는 驚異的數字를 示하고 移出地의 多數注文으로 價格도 顯著히 昂騰하야 最低六十二圓 最高七十圓이란 市勢의好調를보엿는데 今般 朝鮮內多數移出地인 三南方面의

各地秋繭共販

▲牙山 忠南 牙山郡農會에서는 今年秋繭共同販賣를 去十八日부터 開始하엿다는데 今年은 昨年에 比하면 成績이良好하여 約九千貫以上이 産出되엿다하며 경하야 販賣價格이 상당함으로 一般養蠶家에 多少도움이 되리라한다 共同販賣價格은 左와如하다 ▲特等三圓三十八錢 ▲一等二圓八十七錢 ▲二等二圓五十八錢 ▲三等二圓三十錢 ▲四等二圓一錢 ▲等外一圓七十二錢 ▲屑上一圓三錢

▲汶山 京畿 汶山農會에서는 今年秋蠶共同販賣를 左記와如히 開始하엿다 汶山 自九月十五日至二十五日 金村 自九月十六日至二十四日 ▲特等三圓八錢▲一等二圓八十錢▲二等二圓五十錢▲三等二圓二十四錢▲四等一圓九十六錢▲五等一圓六十八錢▲中繭一圓

[illegible] 三十六錢

▲大邱 [illegible] 同販賣는二十一日부터 [illegible] 開始하야 一貫[illegible] 十四日現在로 四千百八十五貫이 나出되엿다하며 [illegible]

▲榮州 [illegible] 共同販賣는 [illegible] 會에서 委託販賣키로 [illegible] 一日부터 榮州[illegible]

外二[illegible]에서 [illegible] 는데 今年은 매우 [illegible] 價格은 左와如하다 ▲特等 三圓四十二錢▲一等 三圓九十錢▲二等 二圓六十錢▲三等 二圓二十錢▲四等 二圓▲等外 一圓七十錢▲玉繭 甲一圓 五十錢 乙一圓三十錢▲中繭 一圓六十錢▲屑繭 三圓

麥品種更新 大大的增產圖謀
全南에서明年度着手

全南에서는 十二年度에 다음과가티 道豫算으로 麥種子更新計畫을 樹立하고 系統品種으로써 麥品種의 更新을 圖하기로되엇는데 麥增産이 漸次 重視되는 이지음 全南의 右英斷은 注目되고잇다 即 全南에서는 十二年度부터 總額十八萬一千圓(道費十一萬六千、邑面費六萬五千圓)으로 써道內麥栽培面積十七萬九千五百町步에對하야 二分의一에 系統的新品種을 普及하고他二分一에 復生種子를普及하야 全面的更新을圖하야 十年後에總額 三十二萬二千石의增産(大麥一割二分、小麥二割八分、綠麥一割五分)을 圖하려는것이다

滿洲國으로부터 元山牛又復注文

【元山】滿洲國鐵路局에서는 朝鮮農會를通하야 特價노픈 元山牝牛三十頭를 注文하야왓다는데 이에對하야 元山畜産同業組合에서는 强壯한암소三十頭를 選拔하야 數日內에 滿洲國吉林省附近으로 輸送하기로하얏다고한다

會寧牛大賣出市

【會寧】지난二十一日에 會寧郡農會에서는 年中行事로 陰秋夕節日을 압흐로 十日을 남겨두고牛市場 景品附大賣出을 하엿는데 當日의 總賣買頭數가 一千三百七十六頭에 達하고 그景品券은 賣買者雙方 合하야 四千七百五十二枚가 發行되엿는데 抽籤은 當日午後十一時頃에 하얏는바 一等當選은 八百〇九番으로 누구인지 아직알수업스며 二等은 會寧郡同面彰孝洞 蔡圭熹 一名이 發表되고 其餘는 누구누구인지를알수업서서 오는三十日까지 判明되는대로 賞品을授與하리라고한다

淸津港八月中貿易

【淸津】八月中淸津港貿易은 七月에比하야 三割八分의 增加인 輸移出 一、六三三、九八三圓 輸移入 三、六七八、七九二圓으로 前月에 比하야 前者는 四五三、二九五圓 後者는 一、〇一一、七一八圓 各其增加하얏고 前年四月에 比하야 三割三分에 增加를보여 滿洲事變以來 國際港으로 一躍急速度로 發展하게되는 常港은 諸般施設과 併行하야貿易額도 累進的增加의 趨勢에잇다

新昌昨年度明太 在庫品三千餘駄

【新昌】東海岸明太魚主要産地인 咸南新昌港의 昨年度産 明太魚數量은 小中規模의 個人所有品을 除外하고 大家及各團體의所有統計를 調査한바에 依하면無[illegible]

鑛山道路의 開發을要求
殖產局에서內務局과折衝

朝鮮의 道路政策은 從前부터 交通網第一主義의 結果 잘못하면 地方經濟의 實情을 無視하는 道路建設을 行한事例가 적지안허서 産業道路問題가 關係方面으로부터 提唱되고잇는데 最近이에 關聯하야서 殖産局方面에서는 鑛山道路問題가 要望되고잇다 林道 其他産業道路는 이미 各方面으로부터 指摘되고잇스나 鑛山業은 等閑視되고잇다 元來鑛山開發은 他業보다도 交通의整備를 必要로하는 狀況에잇슴으로 殖産局에서는 十二年度豫算에서道路改修에對하야 內務局에 鑛山道路開設에 關하야折衝을 開始하고 잇는데 이交涉은 자못 注目되고잇다 그리고 鑛山道路가 充實하면 金鑛業과가튼 不利한 山間製鍊을 避하야 運賃의 大低下가 期待된다고한다

新義州商工業者의苦衷 ②
滿浦線의開通과 商圈分野의變動

▲渭原 新義州에 流下되는 主要한産物은 原木(十萬尺締)을 爲始하야 大豆、正租、蜂蜜等이오 其他 木炭은 江界로 牛皮는 京城及平壤으로 牛는 鐵道沿線으로 硯은 全朝鮮各地及日本內地로 粟、蜀黍及玉蜀黍等의 農産物은 大部分地元消費에 充當되는데 그中玉蜀黍만은 平壤으로 移出되다 物資의 需給狀況을보면 綿布、陶磁器、油類、食料雜貨等은新義州로부터 洋襪、고무靴、日本酒、和洋品(帽子、샤쓰類)等은 平壤及 江界로부터 移入되다 昨年度까지 이곳은 新義州의 商圈內라고 看目하든터이엇는데 最近은 漸次 平壤及江界의 勢力이 增大하는中 今後 滿浦線이 開通되면 新義州와 平壤 商圈의 分界線이 되리라고 觀測된다

各地와의手形關係

	口數	金額
總額	二〇、	五〇、五〇八圓
◇內譯		
新義州	七七、	二二、九五七圓
平壤	二四、	七三、二三圓
京城	六、	九、九五〇圓

▲滿浦鎭 大豆를 除한外 農産物로서 特記할만한것은업는데 對岸의 物資까지를 合하야新義州에流下되는 數量은 一年에 約二十萬圓假量이다 新義州로부터 供給되는 物資는 食鹽이 主로 其他日用品、食料品等은 거의 平壤과

	口數	金額
滿浦		三〇四圓

江界로부터 移入되다 滿浦線의 終端驛으로서 今後 對滿貿易은 活況을 呈할터인데 現在輸出品의 主要한것은 綿織物、毛織物、鹽乾魚「지까다비」、建築用材等이다

各地와의手形關係

	口數	金額
總額	三〇四、	一、四四九圓
◇內譯		
新義州	三三、	五一、二六圓
平壤	九四、	四三八、一七圓
京城	五、	六、九八三圓
鐵南浦		七〇〇五圓
安州	一八、	三、一〇五圓

▲江界 全혀 平壤의 商圈內에잇고 新義州와의 去來는 木材流下와 食鹽供給뿐이라하야도 可하게되얏다 그中에日滿物産株式會社、其他 一二三의 商店이 旣得商圈을 死守하고 食料雜貨等을 供給하고잇다。

各地와의 手形關係

	口數	金額
總額	五、三	二、〇四三、四八一圓
◇內譯		
新義州		八〇、二七五圓
平壤		一、〇四七、三一二九圓
京城		五八八、七四九圓
鐵南浦		三四、六七四四八圓
安州		一〇六八、四五一八圓
咸興		二、七六二七圓

各地方의希望 商業參考資料

義州를 爲始하야 前記各地에서 經濟座談會를 開催하얏는데 席上에서 陳述한 意見、希望으로 商業去來上 參加가될만한것을 摘記하면

▲義州

1、新義州로부터 가장 갓가운이곳에 宣川의 都賣商이 進出하는것은 新義州商人의勢力이不足한때문이라고생각한다

2、宣川의商人은 積極的으로注文을 마트러 오는데 新義州의商人은 오지안는다

3、玉蜀黍粍으로 一輪車를 만드는中인데 土産品으로 販路擴張其他에關한 援助를 바란다

▲朔州

一、新義州商人은 小賣本位인터이지 큰都賣商이업고 또 手持品도 적은모양갓다

二、都賣價가 平壤方面보다 조곰비싼듯하다

三、商品을 注文하야도運機關이 不便한 關係로 急注文에는 밋지못하는일이잇다

▲昌城

一、大口取引을하는 都賣商이업음으로 取引上 不便하다

二、大豆에 對한 新義州의 鐵道檢査는 過嚴하다

▲碧潼

一、新義州의 都賣商은 平壤의都賣商보다 手持品이 적은것갓다

二、新義州商人은 平壤商人에比하야 宣傳術이 不足치안흔가생각한다

三、今後는 上流商人과 日常密接한 連絡을 取하야 商業去來가 發展하기를 바란다

四、大豆의 流下數量이 減退되는것은 檢査의 不統一과 陸路輸送(滿美에 드러오로搬出)이 이러하진 까닭이다

▲楚山

一、日用雜貨는 新義州의便이 平壤보다 빗싸다고 생각한다

二、大豆의 麻袋入을 廢止하얏스면 조켓다

▲渭原

一、水路와陸路의貨物運賃이 차등이 低減하기를바란다(現在로서는 드러運賃이 小包料金과 거의 同一하다)

二、木材及 穀物의 貸付金利及販賣手數料를 低下하라(現在穀物資金은 日步五錢으로하고 販賣利益을 折半으로하며 木材資金 日步七錢으로하고 販賣手數料가 百分之五라고하는 高率이다)

三、新義州와의 取引은 有利하지안은 運送日數가 二十日以上을 要함으로 現品到着에 手形期日이 到來하는일이잇다 그럼으로 手形期日을 延長하라

日用商品市況

京城 (九月廿三日)

◇藥 蔬 類

品名	單位	價格
곤구마	一貫	六一六
토란	同	一 [illegible]
馬鈴薯白	同	六 [illegible]
人蔘	同	四 [illegible]
蓮根	同	六 [illegible]
生薑大	同	五 [illegible]
同小	同	二 [illegible]
수박	同	[illegible]
胡瓜	百個	一〇〇一
茄子	同	一 [illegible]
일본감	一貫	[illegible]
시금치	同	[illegible]
속갓	同	[illegible]
南瓜	本箱	[illegible]
玉蔥	十二貫	[illegible]
靑蔥	一貫	[illegible]
미나리	一把	[illegible]
마늘	百個	[illegible]

◇菓 實 類

品名	單位	價格
苹果紅玉	四貫	[illegible]
同旭	同	[illegible]
同祝	同	[illegible]
梨二十世紀	三貫五	[illegible]
同博多	三貫五	[illegible]
同北海	同	[illegible]
夏蜜柑	同	[illegible]
바나나	一貫	[illegible]
栗	一斗	[illegible]
잣	一石	[illegible]
실백	一斗	[illegible]
胡桃	一石	[illegible]
銀杏	一斗	[illegible]
고추	百斤	[illegible]
고추가루	同	[illegible]
실고추	同	[illegible]
大棗	百斤	[illegible]
乾蕨根	一斗	[illegible]
生落花生	百斤	[illegible]

◇家畜飼料

品名	單位	價格
豆餅乾粕	十貫	[illegible]
成鷄用練餌	五斗	[illegible]
育雛用	同	[illegible]
中雛用	同	[illegible]
鷄虫用粉	二폰드	[illegible]
麩	百斤	[illegible]
玉蜀黍碎	九十斤	[illegible]
同中割	同	[illegible]

◇養鷄用鐵綱

品名	規格	價格
同	粉	[illegible]
同	高粱粉	[illegible]
能	魚粉メ粕	十貫 [illegible]
糠	八貫五斤	[illegible]
穀	百二十斤	[illegible]
四尺幅	二寸目百斤	[illegible]
同	一寸半同	[illegible]
同	一寸目同	[illegible]
三尺幅	二寸目同	[illegible]
同	一寸半同	[illegible]
同	一寸目同	[illegible]
同	五分目同	[illegible]

◇毛皮類

品名	規格	價格
앙고라兎毛	三吋半以上 一匁	[illegible]
同	三吋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以上 同	[illegible]
同	一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梳毛	同	[illegible]
펠트	同	[illegible]

◇川魚類

品名	單位	價格
잉어	一貫	[illegible]
붕어	同	[illegible]
미꾸리	同	[illegible]
뱀장어	同	[illegible]
메기	同	[illegible]
가물치	同	[illegible]
자라	同	[illegible]
繩貝	一升	[illegible]

◇家畜類

品名	單位	價格
鷄卵	百個	[illegible]
同	一貫	[illegible]
生鷄	同	[illegible]
生豚	同	[illegible]
生兎	同	[illegible]
四季鳥卵	百個	[illegible]
鵝卵	同	[illegible]
蜂蜜	一罐	[illegible]

◇其他副業品

品名	單位	價格
麥稈眞田	一反	[illegible]
經木眞田	同	[illegible]
杞柳	一貫	[illegible]
蘼香	同	[illegible]
漆	同	[illegible]
椎茸	同	[illegible]
胡麻油	一罐	[illegible]

【朝鮮副業協會調査】

本社接受水害救濟品 (九月廿五日現在)

物品合計 十二萬九千二百四十二點
穀物合計 三十四俵三斗三升九合

付岩町町會
衣 四一五點 白米 八升五合

馬寶圭 五〇點▲李泰永 二〇點 朴文在 一六點▲[illegible] 孫鐘燦 二三點▲尹[illegible] 金鍾淑 一〇點▲高斗榮 沈景澤 一〇點▲柳永奭 洪成俊 八點▲金[illegible] 趙元吉 八點▲[illegible] 金漢鍾 七點 金永振 七點▲洪[illegible] 金明遠 五點▲[illegible] 柳致福 五點▲宋武鉉 李元榮 五點▲劉明基 尹昌錄 五點▲孔氏夫人 崔鍾鎬 四點▲朴春成 朴德昌 四點▲金景雲 金鎭柱 四點▲黃氏 朴性童 四點▲嚴桓柱 李根培 四點▲金順伊 柳觀相 三點▲金點萬 金正信 三點▲池漢吉 金尹錫 三點▲金鍾萬 古川誠吉 三點▲崔昌漢 李壽男 三點▲朴聖順 無名氏 三點▲魯允明 金乙龍 三點▲崔貞熙 李良成 三點▲金弘玉 元道年 三點▲金龍伊 嚴泰福 二點▲許熙 李德潤 二點▲南宮[illegible] 宋秉基 二點▲金聖振 李泰永 二點▲梁在善 鄭鳳來 二點▲金自春 朴周範 二點▲徐相基 金昌錫 二點▲文漢永 洪點根 二點▲吳基永 丁淳鼎 二點▲金鎭澤 任在鎬 二點▲池姿龍 金在得 二點▲高彩東 金奉文 二點▲金元穆 金熙寬 二點▲柳漢吉 張錫明 二點▲李康德 尹璟榮 二點▲李順振 吳衛泳 二點▲李貴鎬 李承禹 二點▲李點石 李容勳 二點▲崔奉玉 李二南 二點▲姜大熙 韓明根 一點 黃金玉 一點 趙東勳 四點 張泰先 米三升五合▲溫樂中 米一升五合 兪鳳玖 米一升▲金鎭柱 米一升 閔令同 米五合▲崔宇鉉 米五合 王宗鎭 米五合▲金壽奉 米五合

光熙町一丁目町會
衣 一一九二點

[illegible] 鮎崎五市 四六點▲林庄一 四〇點 金在坤 三五點▲尾崎鐵藏 三四點 李寬植 三〇點▲松原貞子 三〇點 名倉辰夫 二七點▲林秀一 二六點 申昌植 二四點▲金燦鎬 二〇點 沈顯玉 二一點▲劉長洙 一八點 姜海龍 一九點▲李春秀 一六點 金應變 一五點▲金相烈 一五點 今永牧三郎 一四點▲武石一志 一四點 道藤貢治郎 一三點▲東光俊 一三點 無名氏 一三點▲朴貞植 一二點 張益祥 一二點▲野上三次 一二點 鈴木鍋次 一二點▲李敏龍 一一點 李英雄 一一點▲李性根 一一點 金相奎 一一點▲無名氏 一一點 孔祥源 一〇點▲秦達成 一〇點 李圭宗 一〇點▲金村植 一〇點 吉本淸秀 一〇點▲金光錫 一〇點 荒木俊藏 一〇點▲無名氏 一〇點 郭亨淳 九點▲李讓煥 九點 鄭基榮 九點▲高義昌 九點 吉崎德太郎 九點▲無名氏 九點 九谷昇 八點▲江頭善次 八點 大賀權次郎 八點▲鄭昭史 八點 無名氏 八點▲增井治郎吉 七點 金順吉 七點▲李日俊 七點 金學俊 七點▲赤司豊 七點 都築ウメ 七點▲李致貞 七點 石黑明 七點▲吳鉉礎 七點 安炳俊 七點▲國光計雄 七點 玉振煥 七點▲吳鍾鉉 七點 無名氏 六點▲高山資淸 六點 金興泰 六點▲嚴陽變 六點 李鶴雨 六點▲司知專一 六點 金昌培 六點▲無名氏 六點 江口好太郎 五點▲西田藤武 五點 姜宗植 五點▲鈴木慶三 五點 金龍九 五點▲李明植 五點 朴順子 五點▲李元榮 五點 絹築澤 五點▲姜以鎭 五點 金順吉 四點▲高永植 四點 木原熊之助 四點▲富澤廣藏 四點 志水小一 四點▲金泰亨 四點 金召史 四點▲李貴植 四點 韓百華 四點▲早田保市 四點 朴致範 四點▲田德龍 四點 後藤潔治 四點▲篠田勝代 四點 林益善 四點▲朴容榮 四點 櫻井鐵五郎 四點▲森山隆 四點 江田猶七 三點▲無名氏 三點 金得景 三點▲小山貞治郎 三點 李敬七 三點▲荻木廣三 三點 永谷喜龍 三點▲靑木源泰 三點 坂本六七八 三點▲林炳一 三點 朴敬浩 三點▲李英淑 三點 [illegible]

新水、舊水町會
衣 二八八點 米 七升五合

[illegible] 金英淑 一點▲鎭文玉 一點 鄭琪順 一點▲金桂花 一點 朴玉仁 一點▲揚完鎬 一點 姜淑子 一點▲金明月 一點 鄭山月 一點▲金慶安 五點 趙芙蓉 一點▲李桂花 一點 崔南鎬 一點▲金永權 一點 金禮元 一點▲李貞順 一點 金在永 一點▲朴文鎬 三點 文在鉉 一點▲白光鉉 三點 金裕熙 一點▲朴貞淑 一點 李近成 一點▲李丁萬 二點 李聖烈 一點▲玄泰根 三點 許辰奭 一點▲鄭儀容 貳點 安周敬 一點▲鄭千鳳 一點 嚴柱完 一點▲金永淑 二點 金正泰 一點▲金興乭 一點 金伊男 一點▲李敬完 一點 劉聖信 三點▲宋鍾熙 五點 劉順增 三點▲鄭圭鳳 一點 金明植 一點▲安熙成 一點 張海榮 一點▲閔泳台 二點 金鍾植 壹點▲文点童 一點 孔有東 一點▲朴允寬 二點 金光祐 五點▲李圭成 一點 李大鵬 一點▲金來習 一點 孔仁成 三點▲辛學俊 一點 朴義秉 四點▲宋致大 一點 金今順 二點▲文熙培 一點 南宮明禮 二點▲卓慶鎬 一點 徐德成 一點▲曺秀煥 一點 南基善 二點▲張潤基 一點 朴東元 三點▲徐興祚 一點 李谷八 二點▲[illegible]

求禮支局經由
衣 一六〇點 麥 五俵五升八合

[illegible] 陳秉變 麥四升▲具宗會 麥三升 朴永洙 麥三升▲宣在連 麥三升 金敬石 麥三升▲柳春成 麥三升 黃順今 麥三升▲梁昌玉 麥三升 吳玉出 麥二升▲李太元 麥一升 金顯洙 麥一升▲孫順石 麥二升 金其千 麥一升▲金學鎬 麥二升 韓仁鎬 麥一升▲李泰淳 麥一斗 金容九 麥六升▲姜太西 麥三升 李俊九 麥五升▲姜甲用 麥五升 權鍋中 麥五升▲蔡淳範 麥五升 金九玉 麥五升▲金正斗 麥五升 李永珍 麥五升▲文三用 麥五升 姜昌浩 麥五升▲申宗來 麥三升 柳學成 麥五升▲[illegible] 麥五升 朴今岩 麥三升▲朱桂花 麥五升 洪文斐 麥四升▲李九用 麥三升 河在植 麥三升▲崔其俊 麥三升 吳其同 麥三升▲林泰九 麥三升 李宗九 麥三升▲金其斗 麥三升 南順哲 麥三升▲李道根 麥三升 南甫文 麥三升▲房成文 麥三升 金承順 麥三升

延安支局經由
衣 五七七點

[illegible] 金仁成 麥三升▲金仁洙 麥三升 姜仁福 米三升▲金太圭 米三升 李德承 米二升▲金合鉉 米一升 李宗浩 米一升▲李相浩 米一升 劉佳煥 米一升▲姜太日 米一升 朴昌文 米一升▲李士俊 米一升 裴明石 米一升▲李敬逢 米一升 金昌業 米一升▲金他官 米一升 吳相鎭 米一升▲李孝鋼 米一升 金德永 米一升▲金桂奉 米一升 崔永植 米一升▲劉秉用 米一升 宋永米 米一升▲李珍九 米一升 全泰來 米一升▲金石九 米一升 李昌祚 米一升八合▲鄭鎭遠 米一升 姜仁日 米一升▲姜元西 米一升 姜益洙 米一升▲崔秉永 米一升 金元南 米一升▲鄭敏鳳 米一升 梁順辰 七點▲金玉 六點 盧相運 六點▲金成洙 五點 黃錠鎭 五點▲黃順今 四點 金永敏 四點▲金守伊 四點 崔淑煥 四點▲金道奎 三點 鄭判權 三點▲李俊九 三點 朴在鉉 三點▲河在沏 三點 朱桂任 三點▲金益圭 三點 朴吉瑞 三點▲尹中五 三點 文順用 二點▲鄭小男 二點 姜益瑞 二點▲林井奎 二點 金他官 二點▲金亨洙 二點 金得洙 二點▲盧承伯 二點 權寧米 二點▲崔秉漢 二點 李東基 二點▲金容玉 二點 申敏哲 二點▲金石九 二點 吳同里 二點▲李春明 二點 權仁鎬 二點▲姜甲用 二點 權學成 二點▲金九玉 二點 李宗浩 二點▲姜昌浩 二點 申宗來 二點▲河在鴻 二點 河在龍 二點▲李乃文 二點 朱桂花 二點▲趙守哥 二點 李應來 二點▲朴道仙 二點 李昌祚 二點▲李亨浩 二點 徐順福 二點▲朴永斗 二點 金炳基 二點▲姜元西 二點 鄭在春 二點▲金公善 二點 金文典 九點▲無名氏 一〇點 河在湖木棉五尺 二點

延安예수敎會 二七點▲朴陽環 二八點 李美理 三點▲朴愛道 三六點 朴仁淑 七點▲吳春成 七點 朴敬愛 七點▲朴壽岩 五點 趙眞寶 二點▲盧哲愚 二點 全敬華

宋成金 二點▲金元順 一點 宋成信 三點▲洪九鉉 二點 朴承元 一點▲申東用 五點 金岺伯 三點▲朴敬俊 一點 張順玉 三點▲孫石奈 五點 金尙錫 三點▲李了承 一〇點 李東善 四點▲宋良順 一〇點 崔鍾鎭 三點▲崔鍾道 一〇點 崔德行 三點▲崔根俊 五點 金丙日 三點▲盧光鎭 一點 朴明子 三點▲金相禮 二點 鄭兒貝 三點▲高貞姬 二點 朴金哲 二點▲李順善 一點 朴基福 一點▲金宗淑 三點 劉基浩 四點▲朴順炳 三點 兪元錫 一點▲安氏 一點 黃氏 七點▲劉玉姬 一點 崔敬信 二點▲[illegible] 盧致善 一點▲高麗慶 二點 朴善玉 三點▲金瑾寶 二點 李學九 三點▲申延淑 二點 金玉順 三點▲[illegible] 劉昌瑞 三點▲李承熙 二點 康貞淑 三點▲尹喜玉 二點 康元永 五點▲張昌九 五點 朴俊道 三點▲宋順則 二點 申元卿 一點▲金成淑 三點 朴基東 五點▲宋寶日 二點 吳順熙 三點▲盧東鎭 二點 宋晉寶 二點▲張仁京 二點 閔化植 一點▲金京淑 一點 宋壽山 二點▲千世昌 二點 宋鍾賢 一點▲朴熙淑 六點 林鐘漢 二點▲李泰順 二點 林竹圭 四點▲金順道

延安婦人會 九點▲고영준 三點 공영순 三點▲리도준 三點 윤희순 七點▲리순영 四點 김정순 三點▲림창선 一點 박태요 一點▲연장손 四點 리정긔 一點▲배영순 一點 박경여 四點▲하성진 一點 정덕재 一點▲리묘희 三點 정부전 八點▲송옥섬 二點 김숙자 二點▲안명산 一點 방용전 二點▲조용섭 三點 조소신 一點▲서애순 三點 오용진 一點▲조춘영 四點 박용전 一點▲정호남 三點 방부전 二點▲리금순 一點 오병순 五點▲김광용 一點 박어진 六點▲강희군 一點 박보애 一點▲리개동 一點 박순보 一點▲송희영 三點 송용금 五點▲송차한 一點 리인길 一點▲박예자 二點 오영희 一點▲황숭만 一點 리복남 一點▲림요한 二點 리현복 五點▲강인선 一點 리영녀 三點▲리퓌섭 二點 윤간난 九點▲리연녀 一點 장숙영 三點▲박남순 一點 전남자 二點▲박숙자 一點 송순섭 二點▲김종린 一八點▲리연홍 三點 장용영 三點 김화실 二點 공내규합 一點 장명숙 六點

[illegible] (內譯) 二圓李鍾祐 一圓鄭漢成 柳己石 申甲淑 朴麟來 朴泰興 金元錫 金鳳春 兪始煥 李正男 韓相文 尹弘燮 尹山玉 五十錢 朴陳浩 崔仁洙 敦泳九 徐元燮

社會事業協會收合 水害義捐金

一、〇〇三、八六 京城玉仁町

[illegible]

(第一書記官室 [illegible] 職員 一九、四四九、三〇)

[illegible]

黃昏 (186)
韓雪野 作
安夕影 畵

교차선(交叉線)(九)

「내가 어듸 갈대요잔 알어서 뭐하는거냐? 또 갈다왓스면 어때란말이냐? 경칠 놈들! 남의 걱정 말구, 너이들 걱정이나 해라」

동필이가 이러케 말하고 휙 가버리라는것을 봉구가 소매를 붙잡아쳣다——

「이사람아! 그래, 내가 묻는게 잘못이란 말인가? 가기는 어듸로 가나?」

「내갈데로 갓다。그래 어쩌려나?」

「못간다、못가!」

「허허…위험하는십이냐?…그래 때릴려건 때려봐라。얼마든지…」

동필은 터아래로 키적은 봉구를 내려다보며 어이업는듯이 입맛을 다신다。

「그러면、내가 자네한테 말을 못지못할 사람이란 말인가?」

봉구는 매여달리듯이 닥아서며 눈을 모로 세엿다。

「그리기 경직하게 말을 해라」

「이놈아! 노흘 놀리는 거나?」

하고 봉구는 그의 주먹을 왁 쥐리며

「내가、참말 그런줄이좋은 줄 알다。다른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너를 그러케 멋지안튼다」

「…새대가리만치라도 행실이냐? 아엇스리라고 미덧다」

하고 뭐—하며 돌아서 버리라하엿다。

「요놈아! 밋는게 그거냐?」

…나는 적어도、밋는다면서 친구의 행동을 무뎜을 따라 고드는 그런 알워의 미움을 밧고싶지 안타——안바더도 손할 것 하나 업다。…차라리 너이가티 경망한 놈들의 미움을 밧는게 내게는 명예인줄안다」

동필은 어느새 다시 흥분되여갓다。

「무뎜을 따? 엥히 망할놈! 정말 제무뎜을 제손으로 파는 놈은 너자신이다。지금이 어느때냐? 때가……되지못한 사깃을 가지고 못까지 쥐와 고되잔은 잔재간을 부리지 말구……」

「거짓말 한건、뭔가?」

「너이들이 그래봐도、내가 다 안다、알어」

「이놈아 글세 알긴 뭘안단말이냐? 말을 해봐라……」

「그리구우선 너의 직함과 사명을 말해보란말이다」

하고 동필은 너무도 아니꼬운듯이 제낌에 씩 웃음을 지엇다。

「직함? 엥히、망할놈!……그놈、참말 미첫구나 미첫서」

「그러면 좀더 똑똑히 애기해주랴?…악가 주지어허구 무슨 얘길 햇는가 말이다。그리고 무슨 말을 바다가지고 왓는가 말이다?」

동필은 드소는 흥분을 누르며 그만 일소에 부쳐버리듯이 냉연히 조롱하는 얼굴로 봉구를 내려다본다。

「요새 밥 낫 하는、그 얘길 햇다。그래 어떠란말이냐? 너는 그래 뱃속이 편해서 난장이 올 지경이냐?」

이번은 봉구의편이 분노에떨고잇섯다。

「얘、그리지 말구 천동필이가 타락분자를 잡아잡술 공론을 햇다구 적직히 말해봐라…그러나 너이가 천하업는 별소리 다해봐도 잡아먹힐 천동필이가 아니다。어듸、해보라거던 얼마던지 해봐라。까딱이나 하나……」

동필은 냉소를 지으며 봉구의 코아페 주먹을 견우엇다。

「…래?」

봉구도 극도로 흥분되어 갓다。

「너이가 그리는거지 내가 그리는거냐? 너이놈들이 무어라고 하든지 나는 내량심을 버리려는 사람은 아니다。너이들이 비록 내머리뒤에 무덤으로 가는 꼬리표를 달려고 들지만 그래도 내갈곳은 내가 걸어갈 것이니 넘려 말고 너희 갈길이나 가거라」

「그러면 네길길을 좀 말해봐라。그것이 듯고십어서 너를 차자온것이다……정말 그러케올흔 길을 걸으라는 너일것가트면 말 못할게 업지안흐냐?」

「네가[illegible]그만두허구 지말할거업다。그리구 너와나와 단두리 다툴것도 업다。발뒷굼치를 쪼차다녀도 하나 물어갈거 업스니창피한대로 돌아가거라」

동필은 이러케 베엇고 어듸론지 휙 가버렷다

려순의 아야기를 다듯고 봉구를 차자온 주서은 멀지안치 서우그들의 말이 못나기를 기다려가지고 동필이가 어듸로가 버린다음 봉구의겨틀로지나가며 나직히 물엇다

「어떠케 됏니?」

「량심이 좀 제려난 모양이데…작우간 자네도 한번만나보게。아주 뭐어버릴상 시치는안 헤」

하며 봉구는 한걸음 뒤떠러저 따라가며 대강대강 얘기하엿다。